

5월 글로벌 주식 전략

전쟁을 넘어선 펀더멘털과 정책 기대



[요약] 5월, 전쟁을 넘어서는 펀더멘털과 정책 기대

주식 시장 환경: 전쟁에도 펀더멘털 개선은 지속

[이란 전쟁: 해협 차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의]

-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모두 봉쇄한채 대치하는 상황. 대치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합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의 자금줄은 차단된 상태.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을 원하는 만큼 이란에 합의를 유도
- 전쟁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는 유의. 이란 전쟁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점차 낮아지며 양호한 펀더멘털에 더 주목할 전망
- 5월부터 신임 연준 의장이 부임할 예정. 다만 컨센서스 기반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준의 특성은 대대적인 스탠스 변화를 저지하는 요소

[빅테크 Capex 수혜, 정책 지원 쏠림 분야 집중]

- 전쟁 관련 변동성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양호. 전쟁 중에도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익은 상향 조정
- 1분기 실적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증가세 재확인될 전망. Capex 증가세 지속되는 이상 반도체, 전력기기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FY2027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1.5조로 증액. 우주 경제 선점에 집중하며 우주군 예산은 전년대비 약 80% 상승
- 이란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방산 소재 안보 증강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지원도 지속. 원자력, 친환경 에너지와 핵심 자원에 대한 관심 유지

글로벌 주식 전략: 에너지와 방산 공급망 강화 분야, 테크 Capex 수혜 분야 집중

[핵심 성장 + 공급망 강화 테마]

- 핵심 광물/희토류(REMX ETF): 서방권내 핵심 광물 공급망 형성 본격화. 이란 전쟁으로 방산 소재 공급 확보의 필요성 부각
- 원자력 에너지(URA ETF): 원자력 에너지 증진 정책 지속되며 원재료인 우라늄 수요도 증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도 긍정적
- 신재생 에너지(ICLN ETF):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할 전망
- 우주 테크(NASA ETF):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입량 증가로 관련 기업들에 관심 고조
- AI 테크(AIQ ETF):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리. 소프트웨어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편
- 인프라(PAVE ETF): 미국 전력 생산량 증진 정책 수혜 기대. 데이터센터 Capex 증가 흐름도 긍정적
- 금 채굴(RING ETF): 금리 인하 기대가 위축됐지만 금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각국의 최종 안전자산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높음

Top Picks

테크 Capex 수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관심 유지

- AI 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리. 소프트웨어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편
- 우주 테크: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입량 증가로 관련 기업들에 관심 고조
- 희토류: 서방권내 핵심 광물 공급망 형성 본격화. 이란 전쟁으로 방산 소재 공급 확보의 필요성 부각
- 신재생 에너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할 전망

Top Picks

티커	테마	ETF명	AUM (백만달러)	수수료 (%)	Top 10 비중 (%)	수익률 (%)			투자포인트
						1M	3M	YTD	
PAVE	인프라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13,006	0.47	32.5	12.7	9.6	17.4	미국 전력 생산량 증진 정책 수혜 기대. 데이터센터 Capex 증가 흐름도 긍정적
AIQ	AI 테크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ETF	8,532	0.68	36.8	21.3	3.8	8.4	수익성 우려는 상반기에 높아질 수 있겠지만 유동성 환경 양호. 양호한 수익성을 지닌 클라우드 3사가 유리
URA	원자력/ 우라늄	Global X Uranium ETF	7,787	0.69	65.8	18.6	-4.4	29.4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자재 중 우라늄은 희토류와 함께 정책적 지원이 제공
RING	금 채굴	iShares MSCI Global Gold Miners ETF	3,100	0.39	69.0	11.0	-12.2	11.7	인플레이션 헷지 역할 기대. 금 가격 상승세 이어지면서 채굴 기업들의 마진 상승
REMX	희토류/ 핵심 광물	VanEck Rare Earth and Strategic Metals ETF	2,856	0.58	61.6	14.5	1.0	33.3	중국과의 경쟁에서 선방하기 위해 미국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은 필수. 미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본격화
ICLN	신재생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419	0.39	52.5	12.0	7.6	21.7	이란-미국 전쟁 이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와 에너지 안보 우려가 부각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심이 재확대
NASA	우주	Tema Space Innovators ETF	281	0.87	50.9	17.1	17.1	17.1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입량 증가로 관련 기업들에 관심 고조
3191	중국 반도체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236	0.68	49.8	18.0	-1.3	17.1	중국 반도체 자급화 정책이 중장기 수요를 지지. 장비·파운드리 중심으로 국산 대체가 가속화되며 수혜

주: 4월 22일 기준, AUM 순으로 정렬/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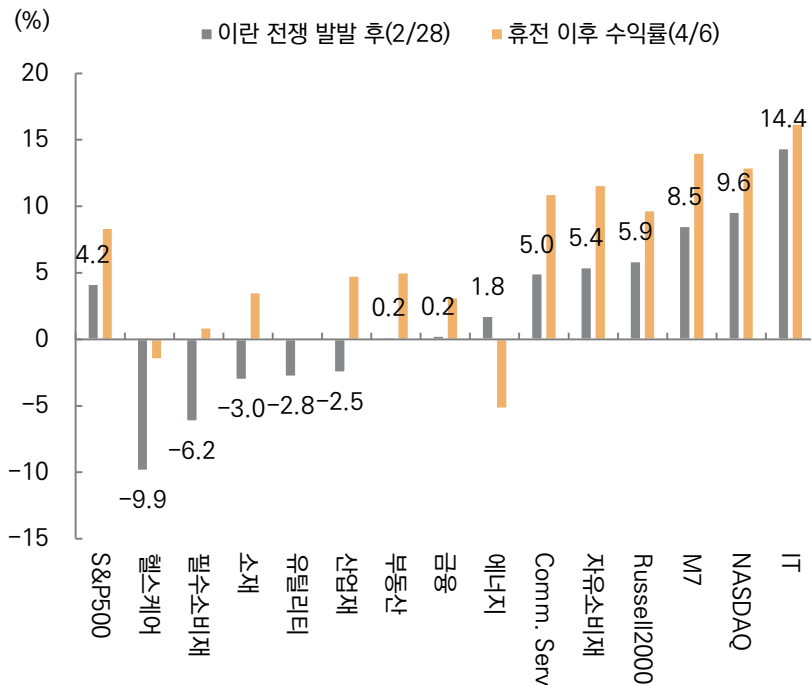
글로벌 주식 시장 전망

4월 주식 시장 리뷰

휴전 이후 주식 시장은 IT 중심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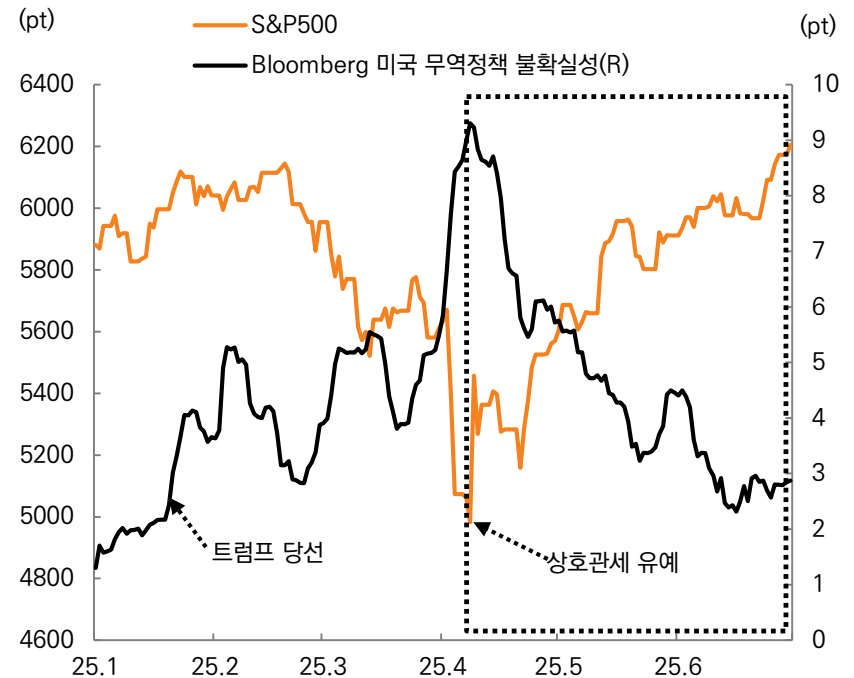
- 이란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주식 시장은 반등 개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 테크 중심으로 회복. 군사적 긴장감이 낮아지고 유가 변동성도 하락하면서 테크의 강한 펀더멘털이 부각된 영향
- 최종 합의까지 일부 변동성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쟁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 만큼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
- 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 전후 시장 흐름과 유사. 트럼프의 유예 발표 이후 핵심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며 본격 회복세 돌입

S&P500 섹터별 수익률



주: 수익률은 4/24 기준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상호관세 전후 S&P500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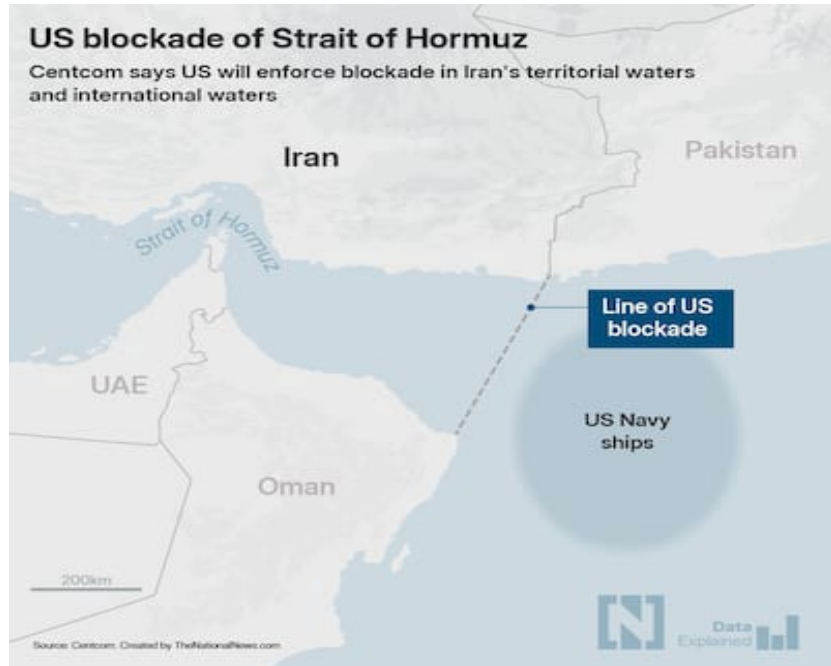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란 전쟁: 결국은 협상으로 마무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이란은 결국 협상을 재개할 전망

- 2차 회담은 무산됐지만 휴전이 무제한 연장되며 우려됐던 군사적 갈등 재개는 불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계획
- 이란은 결국 협상에 다시 임할 전망.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이란은 이제 일방적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활용할 수 없음. 이란 항구가 봉쇄되며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이 차단됐기 때문. 일각에서는 이란이 하루 4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 3주 후면 원유 생산도 정지
- 또한 미국은 본격적으로 해협내 지뢰 제거 작업에도 나서는 모습. 이란의 핵심 협상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도 위협 받는다는 의미
- 최종적으로는 이란의 단계적 핵포기를 대가로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형태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란의 최대 협상 카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자료: The Nationa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과 이란의 협상 포지션

	이란 (10개 조항)	미국 (15개 조항)
핵 프로그램	1.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2. 핵과 관련된 모든 IAEA 종료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비축분 이전 이란 3대 핵시설 해체, 핵 영구 개발 금지
제재	3.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철폐 4. 이란과 교역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철폐 5. 이란 대상의 UN 안보위 결의 종료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모든 경제적 제재 완화 시사. UN 결의 포함
호르무즈 해협	6.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군사 및 안보	7. 향후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보장 8.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전투 병력 철수	미사일 사거리/수량 제한, 이란의 지역 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대리 세력	9.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대리(proxy)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 중단
피해 보상	10.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대체할 방침)	이란 부셰르 민간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대한 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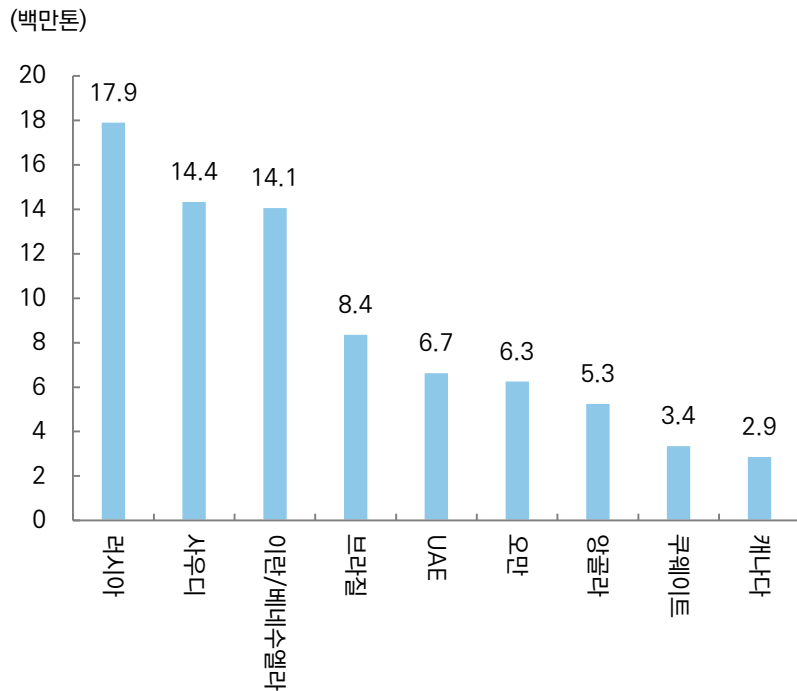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란 전쟁: 중국의 중재도 기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장기적 차질은 중국에게도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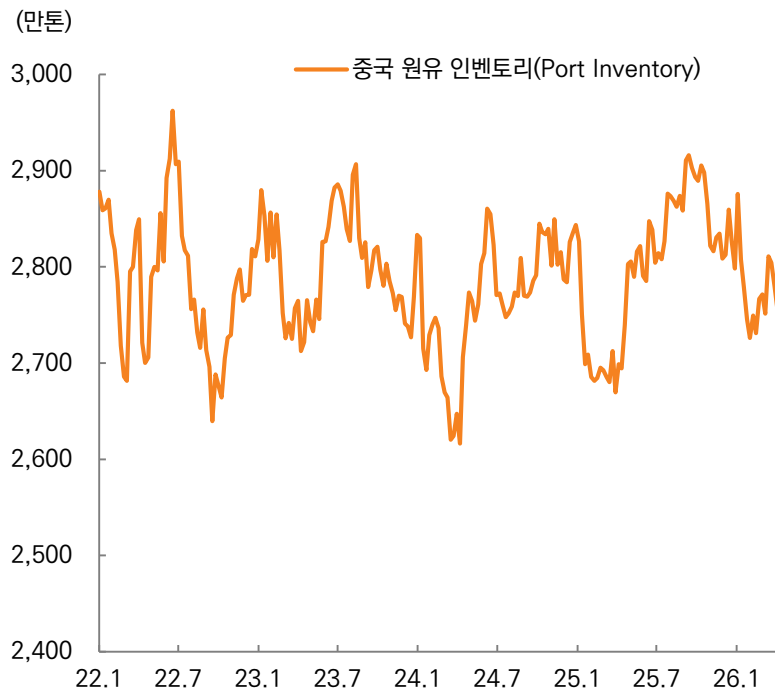
- 미국의 봉쇄는 중국의 중재 활동을 촉구할 수 있음. 중동,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신속한 전쟁 종식을 원함
- 이란은 중국 원유 수입 중 14% 가량을 차지. 중국의 원유 비축량도 점차 소진되는 중. 이란도 최대 원유 구매자인 중국의 압력을 무시 못 함
- 시진핑 주석도 처음으로 이란전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4/20).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원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지지
- 5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5/14~15)도 신경 쓸 필요. 중국은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만큼 미국과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

중국의 원유 수입 비중(2025)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유 인벤토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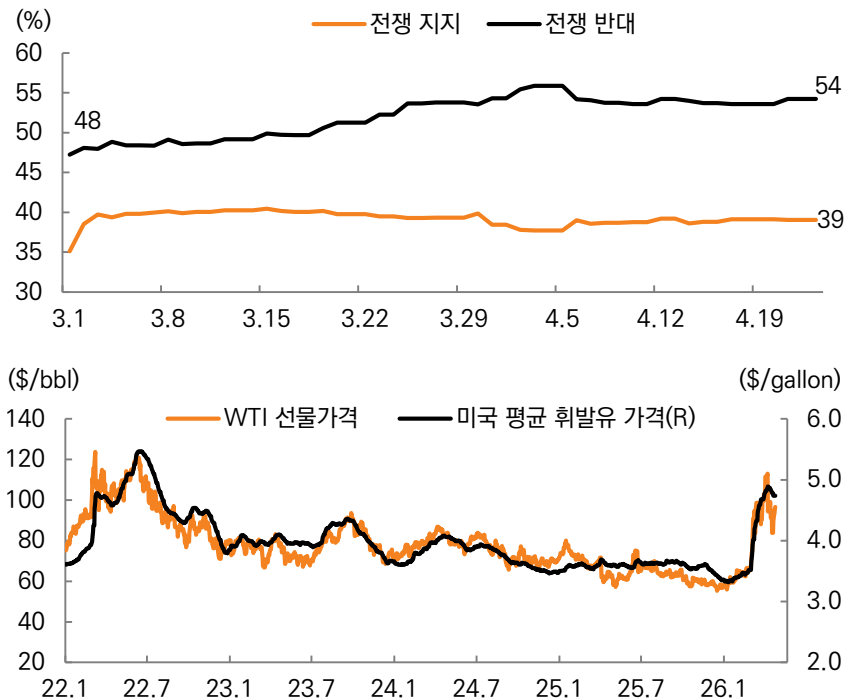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란 전쟁: 악화되는 미국내 여론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질수록 트럼프와 공화당은 불리

- 트럼프도 이란과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필요. 전쟁이 진행될수록 트럼프와 공화당의 여론은 더욱 악화. 약속과 달리 미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트럼프의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간 가운데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확률은 50%를 상회.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종식 압박을 강화
- 전쟁 이후 60일(5/1) 이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도 필요. 대통령 권한으로 비상을 선포하고 추가로 30일동안 전쟁을 이어가는 방안도 있지만 향후 법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높음. 미국의 협상력도 약화

유권자들의 전쟁 지지율 추이, 미국 휘발유 가격



자료: natesilver.net,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민주당 상하원 장악 가능성, 트럼프 지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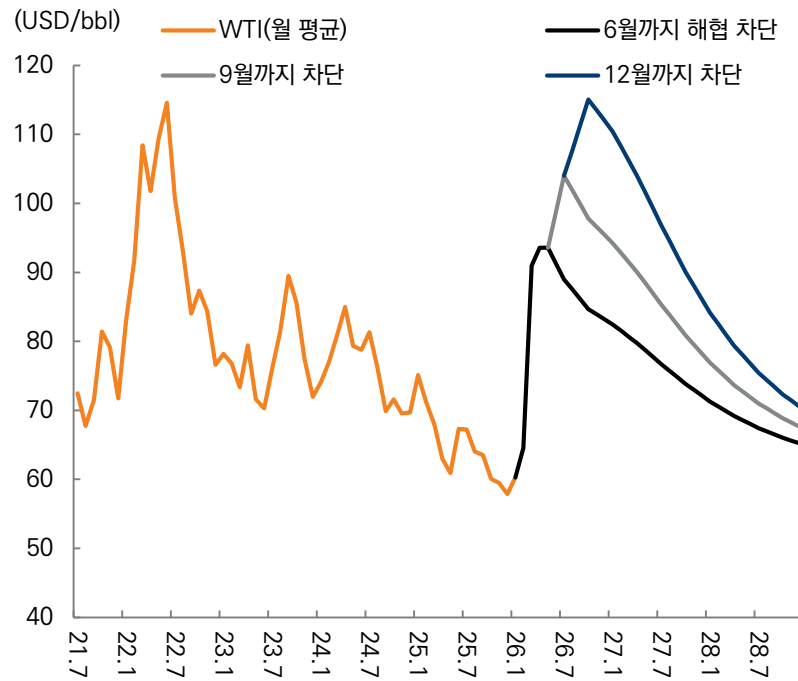
자료: RealClearPolitics, Polymark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란 전쟁: 합의 도달 시점이 관건

이란 전쟁의 여파로 식품 가격 상승 압력도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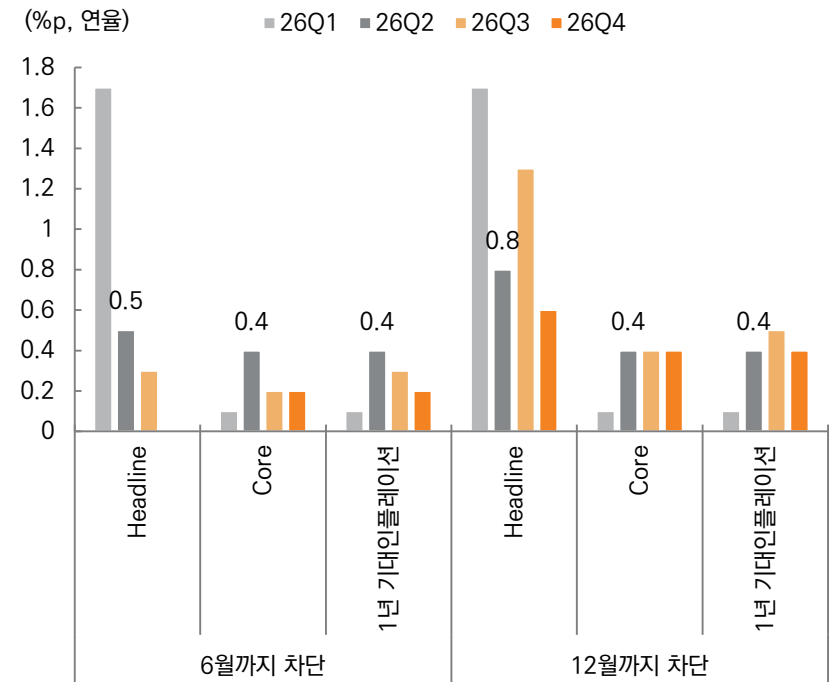
- 합의 전까지 미국의 봉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문제는 봉쇄 기간 동안 해협 차질도 지속되며 유가에 상승 압력을 부과한다는 점
- 해협 정상화 시점에 따라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도 달라질 전망. 해협 차단이 길어질 수록 하반기 중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는 구조
- 특히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운송, 화학 소재를 비롯해 소비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Core 인플레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나리오와 유가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시나리오별 인플레이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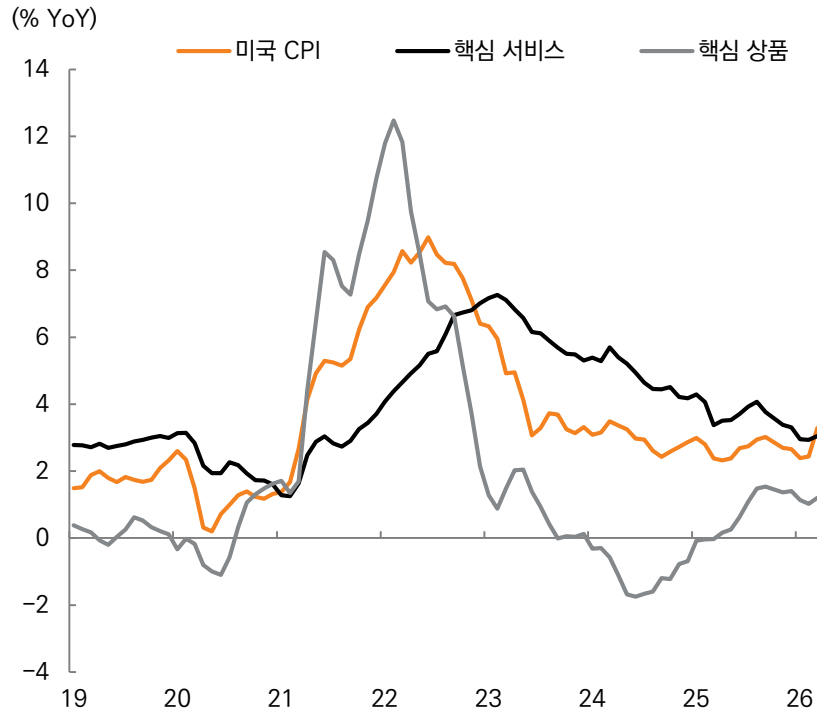
자료: Dallas Fe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이란 전쟁의 여파로 식품 가격 상승 압력도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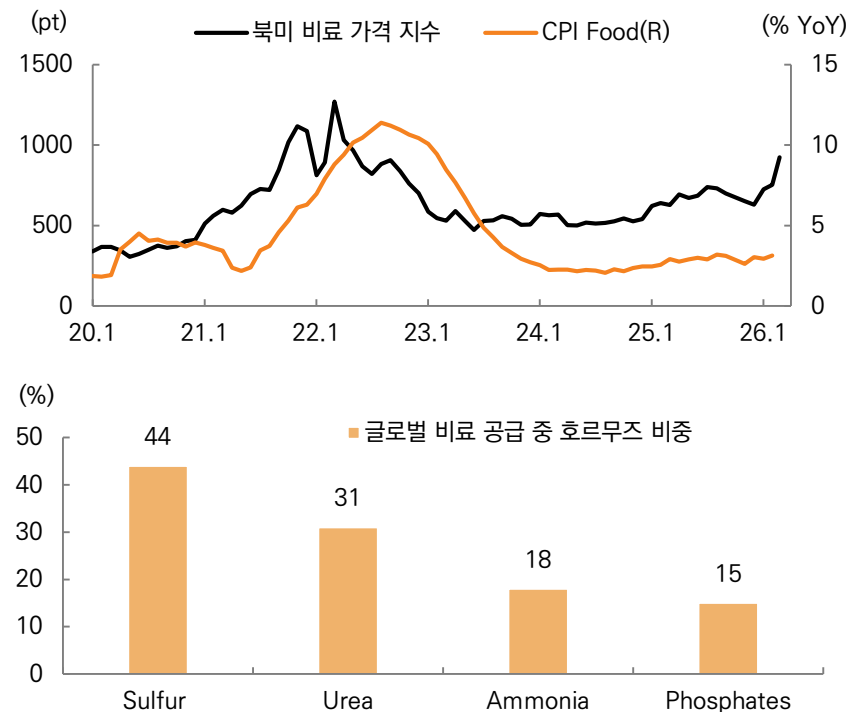
- 이란 전쟁의 여파로 2026년 중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상승. 전쟁 이전에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3%대. 원재료, 상품 가격도 이미 관세로 인해 상승 압력에 노출되어 있던 상황
- 또한 에너지 가격 외에 식품 가격도 자극. 중동은 에너지 외에도 요소(Urea), 암모니아 같은 주요 비료 공급 지역
- 비료 공급 축소로 미국내 비료 가격도 3월부터 상승 중. 비료 가격 상승은 향후 식품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

미국내 인플레이션은 2~3%대에서 고착화된 모습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내 비료 가격과 식품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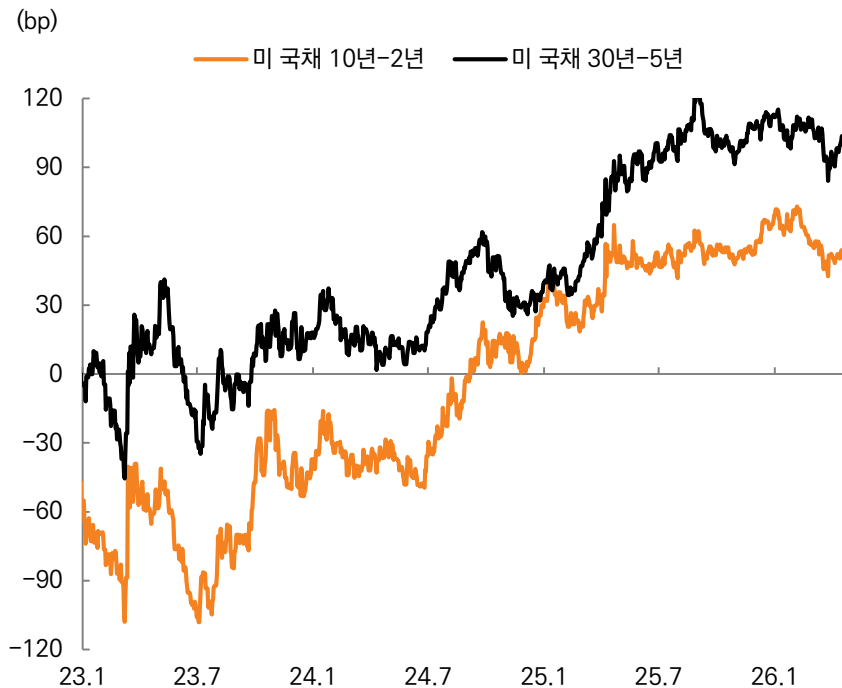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merican Farm Bureau,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인하 기대 위축

인플레이션 우려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 위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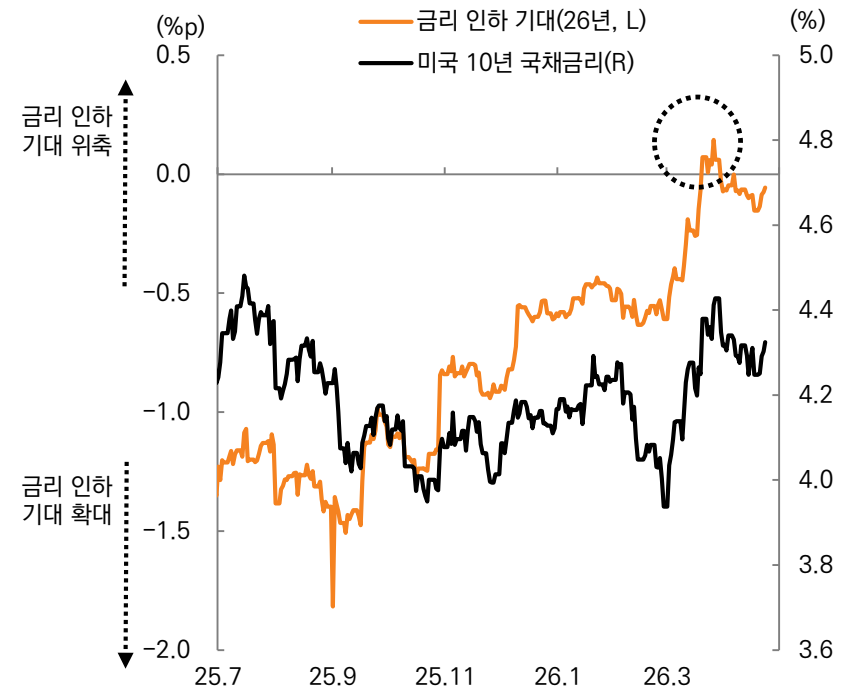
- 이란 전쟁 발발로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강화는 어려워진 상황. 전쟁 발발 후 선물 시장에 내재된 연준 금리 인하 폭은 0% 내외로 축소
-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지명자가 금리 인하 의견을 적극 개진하더라도 연준내 컨센서스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임
- 취임 후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부각될 경우 장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5년 중 트럼프의 파월 공격도 유사한 효과 촉진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하반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의 부각이 리스크.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인상 리스크 반영되며 주가 하락 야기

미국 국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 금리 인하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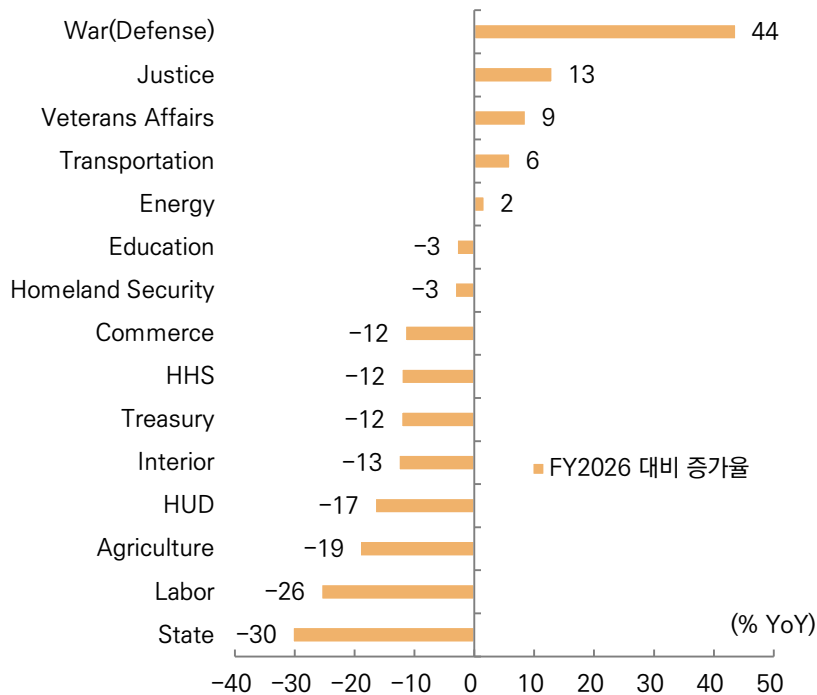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재정 자금은 국방부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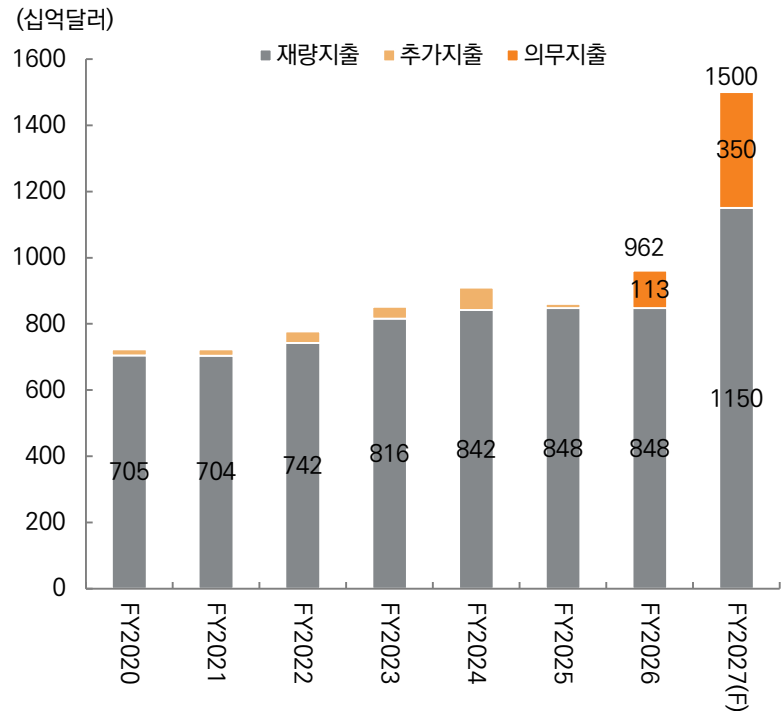
전년대비 국방부 예산 42% 증액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

- 이란 전쟁 중 트럼프 행정부는 FY2027 예산안을 발표. 다른 부처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대신 국방부 예산은 1.5조달러로 증액 요청
- 전쟁으로 소진된 군수 물자(munition) 재고를 보충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순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 국방 예산 중 3500억달러는 공화당 표만 요구되는 예산조정(reconciliation)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 예산 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의무 조정으로 분류되어 정기 재량 지출대비 더 높은 안정성이 기대됨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우선 순위 정책



전년대비 42% 증액한 국방부 예산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



자료: The White Hou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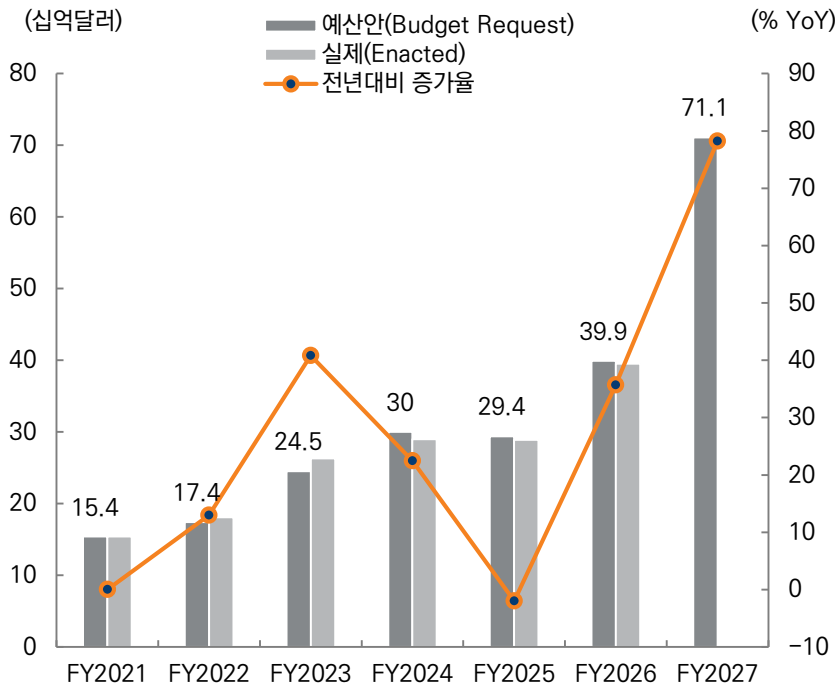
자료: Do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행정부의 FY2027 예산안

주요 우선순위 정책으로 재정 자금 몰리며 관련 기업 수혜 예상

- 우선 순위 정책 중에는 우주도 포함. 우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안보를 강화하고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 2020년에 창설된 우주군은 다른 부문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높음. 과거 경험상 우주군은 요청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가 대다수
- 다른 대표 우선 순위로는 2025년부터 강조되어 온 골든돔과 황금 함대와 관련된 조선 인프라 증진, 드론, 군수 물자/탄약 보충도 포함
- 해당 분야로 재정 지원이 집중되며 관련 분야(우주, 핵심 광물, 미사일 방어) 기업들도 수혜 기대

Space Force 예산 추이



자료: Do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우선 순위 정책

항목	내용
1.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방어 센서 및 요격체 개발, 미사일 무력화 개발 지원)
2. 군인 급여 인상	군 급여 인상 (E-5 이하 +7%, E-6 ~ O-3 : +6%, O-4 이상 : +5% 인상)
3. 우주	우주 안보 및 경제적 이익 확보 (골든돔, 발사 인프라 구축, 기타 기밀 프로그램)
4. 해양 패권 회복	해양 방위 산업 기반 재건 (각 부처별 조선 수요 전면 파악 및 함대 재건)
5. 조선	전투함 18척, 비전투함 16척 조달 (황금 함대 창설)
6. 핵심 탄약	12개 핵심 탄약 신속 조달 (생산 능력 확대)
7. 핵심 광물	핵심 광물 및 공급망 투자 확대 (국가 비축 부족 해소 및 대외 의존도 축소)
8. 전투력 유지	전투 및 작전 의무 부서 신설 (전투 가용성 향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강화)
9. F-47 전투기	F-47 6세대 전투기 개발 가속화 (2028년 첫 비행 목표)
10. 국경 보안	남부 국경 대응 능력 강화 (수송, 센서, ISR 역량 확대)
11. 핵	핵 전력 현대화 및 체계 재구축 (핵 억지력 유지)
12. 무인항공체계	무인·대무인 체계 투자 확대 (드론 전력 우위 확보)
13. 인공지능	AI 군사 활용 확대 (AI 생태계 확장 및 GenAI.mil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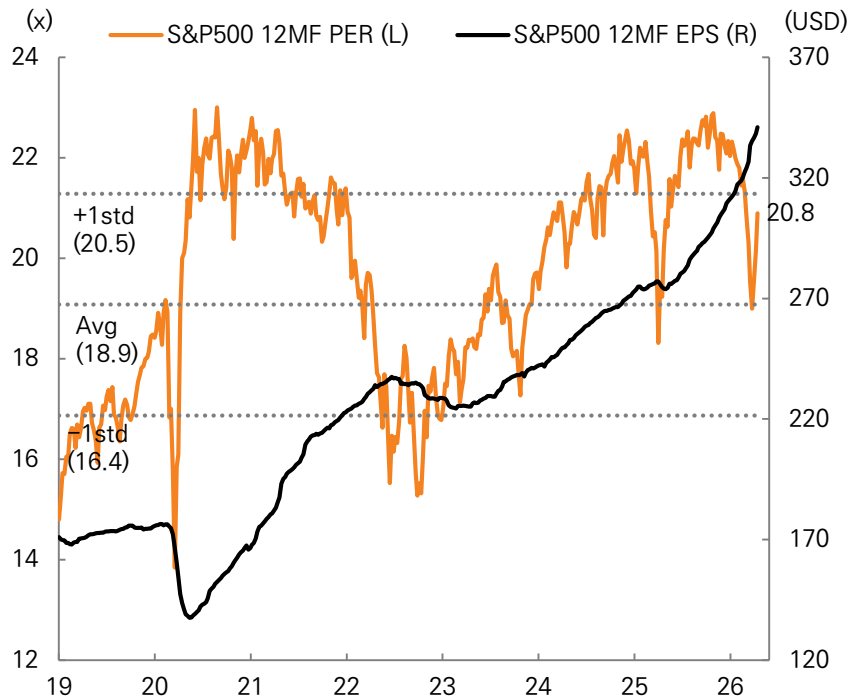
자료: The White Hou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 양호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업들의 이익은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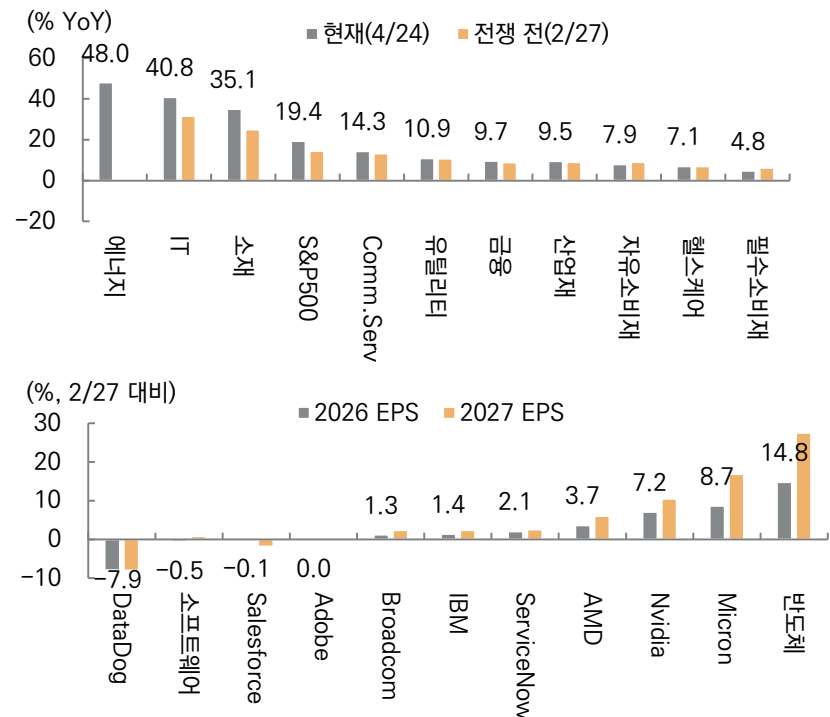
- 이란 전쟁 변동성 잦아들면서 S&P500과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도 재개될 전망. 미국 기업들의 이익 환경은 양호
- 2026년 S&P500 EPS는 전년대비 19% 증가 예상. IT, 소재, 에너지가 주도. 전쟁 중에도 대부분의 업종의 EPS는 상향 조정
- 테크 내에서는 소프트웨어, Comm.Serv 대비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조정폭이 부각. 빅테크 Capex가 이익 증진을 촉진
-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전쟁 이전 고점(22.8x)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

미국 S&P500 12MF PER, EPS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P500 업종별 2026년 EPS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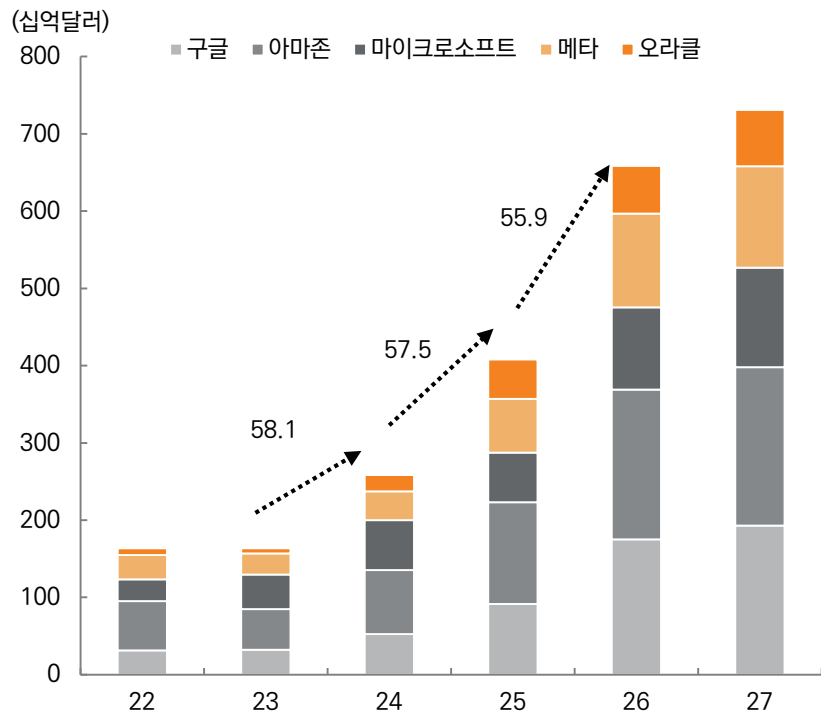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Q 빅테크 실적 발표: Capex 증가세 확인

Capex 수혜 기대되는 분야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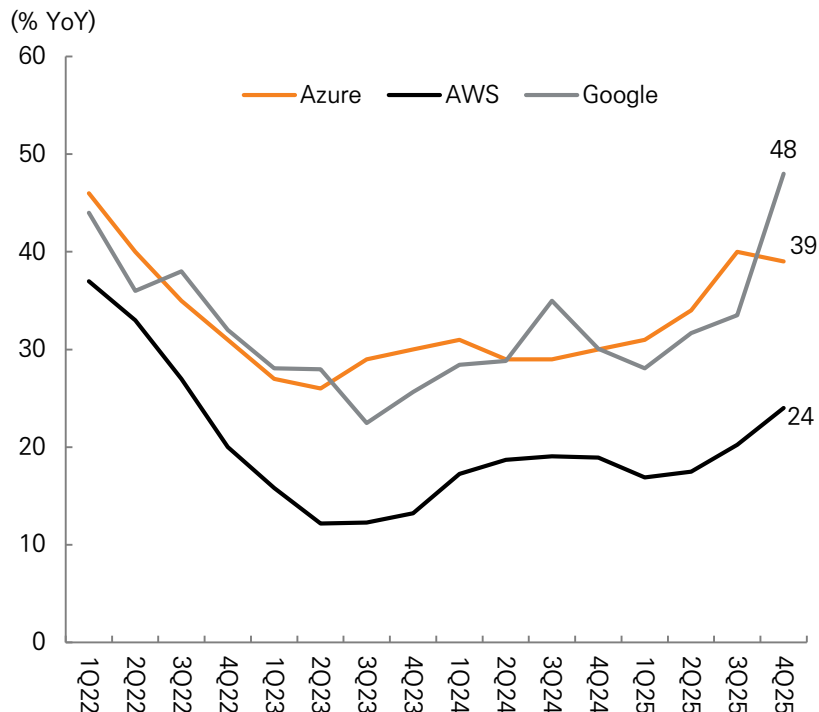
- 5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26년 Capex는 전년대비 약 56% 증가해 6,500억달러에 근접할 예정
- 26년 1Q 실적에서도 Capex 증가세 재차 확인될 전망. 구글 CEO는 Cloud Next에서 올해 2026년 Capex 목표인 1,850억달러를 재확인
- Capex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전력기기, 원자재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반면 Capex를 집행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에게는 부담 지속
- 해당 지출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익 창출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 보일 필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 개선이 필수

테크 기업들의 Capex 추이와 증가율 (YoY%)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클라우드 기업들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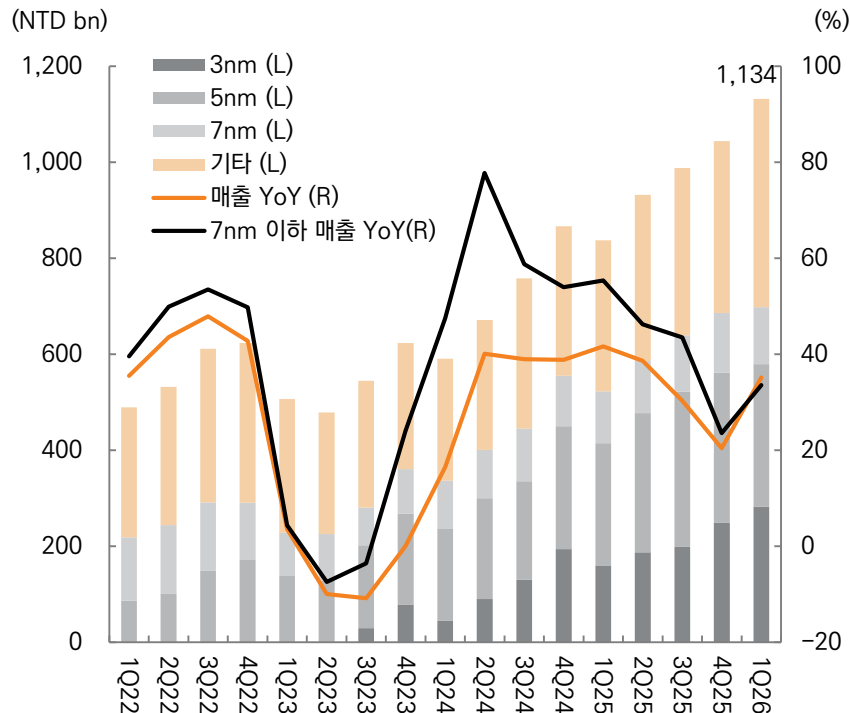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apex 수혜 분야 집중 유지

소프트웨어 대비 반도체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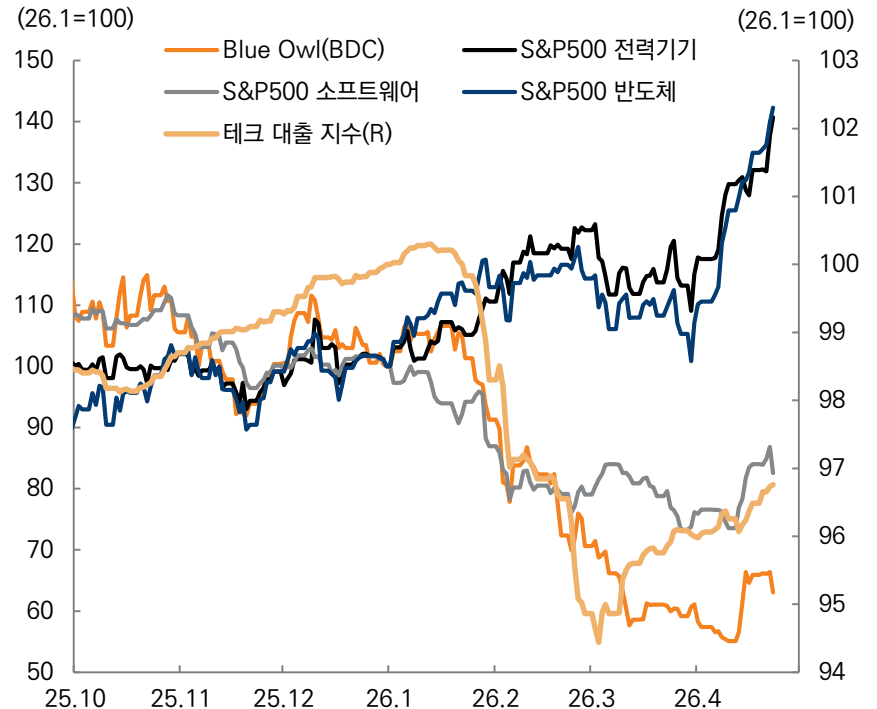
- 빅테크의 Capex 증가세가 이어지는 이상 반도체, 전력기기의 강세도 지속. 소프트웨어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
- ServiceNow, IBM 실적발표 이후 낙폭 확대. 시장은 단순 실적 호조 보다는 AI도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
-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채권 가격 반등은 사모 크레딧/BDC 관련 우려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BDC 관련 우려는 지속 관찰 필요
- TSMC의 1분기 실적에서도 높은 AI칩 수요 재차 확인. AI칩 생산에 사용되는 7nm 이하 공정 매출 성장률 반등, 3nm 공정 비중도 상승

TSMC 공정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프트웨어의 부진한 흐름 지속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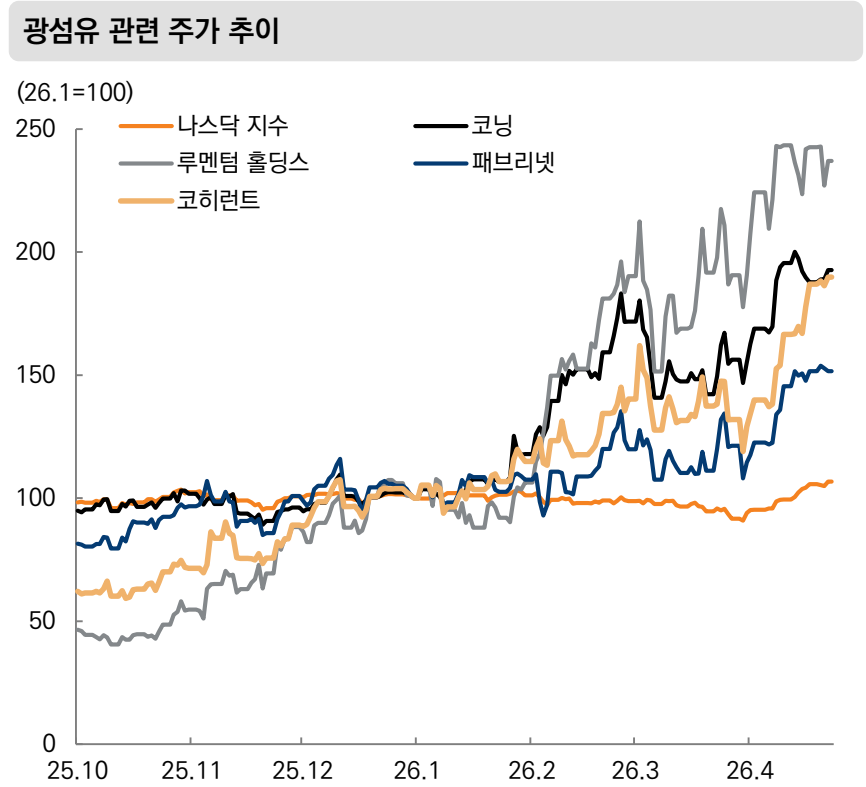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 Capex는 광섬유 수요도 자극

AI 데이터센터 고도화에 따른 광연결 채택 확대

- AI Agent·Physical AI 확산과 실시간 추론 작업 증가로 데이터 이동량이 급증하며, AI 데이터센터는 고밀도·대규모 연결 중심으로 진화
- 대규모 AI 클러스터에서는 신호 손실과 전력 소모 부담이 큰 구리 기반 연결 시스템 대비 광섬유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 엔비디아도 GTC 2026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CPO 스위치를 Agentic AI 시대의 핵심 네트워킹 기술로 제시
- 코닝은 메타와 최대 60억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AI 데이터센터향 광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을 구체화

광섬유와 구리배선 비교 테이블		
항목	광섬유	구리배선
신호 방식	빛으로 전송	전기 신호로 전송
전송 속도 (bps)	100G~1.6T+	일반 LAN 1G~10G DAC/AEC 100G~800G
최대 도달 거리	수백 m~80km+	일반 LAN 100m 이하 DAC/AEC는 1~5m
감쇠 정도 (손실 정도)	약 0.2dB/km	약 20~30dB/100m (Cat6A 기준)
전자기 간섭	거의 없음	영향 큼
전력 효율	고속·장거리에서 유리	고속화 할수록 불리
주요 사용처	데이터센터·AI 클러스터·장거리 통신	사무실 LAN·단말 연결·초단거리 Rack 연결
두께/무게	얇고 가벼움	굵고 무거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

글로벌 주식 전략

우주: 체계적 정책 지원 기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장기적 플랜 집행 본격화

- 미국은 우주를 타국에 비해 반드시 먼저 선점해야 하는 분야로 바라보고 있음.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잠정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기 때문
-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우주를 국가전략 영역으로 재정의하고 2028년 달 복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궤도상의 원자로 배치, 상업적 우주 기지 등을 통해 미국이 우주 운영에 필요한 architecture 주도권 확보
- 해당 정책을 중심으로 NASA, 국방부, 상무부가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수립. NASA는 탐사, 우주군은 안보, 상무부는 우주 교통관리 담당

미국의 장기 우주 정책 추이

구분	~2026	~2027	~2028	~2030	장기
백악관 (행정명령)	- 우주를 국가전략으로 재정의 - APST가 전체 이행 총괄	- 달·화성 유인탐사, 회복력 있는 국가안보 우주체계, Golden Dome 연계 기술, 상업우주 활용 확대를 정부 투자 우선순위로 설정	- 미국인 달 복귀 프로젝트(Artemis) - 차세대 미사일 방어 기술 실증 - 우주시장 추가 투자 500억 달러 유치 목표 - 궤도상 원자로 배치 목표	- 달 전초기지 초기 요소 구축 - ISS 대체 상업 경로 마련 - 달 표면 원자로 발사 준비	- 2031년 국방용 mid-power 원자로 배치 추진 - 2030년대 100 kWe급 이상 고출력 원자로 준비 - 미국이 우주 운영 표준·서비스·안보 아키텍처 주도권 유지
NASA (Artemis)	- 아르테미스 구조 재설계 - SLS 표준화, Gateway 우선 순위 재배치 - ISS 이후 상업 저궤도 전환 설계 - mid-power 우주 원자로 프로그램 착수	- Artemis III를 저궤도 미션으로 운영 - Orion과 상업 착륙선 도킹, 운용 능력 검증 - 최대 30회 로봇 달착륙 목표 개시	- Artemis IV·V 유인 달 착륙 추진 - 최소 연 1회 달 표면 임무 시작 - Space Reactor-1 Freedom 발사 추진	- 반거주형 인프라·정기 물류 중심의 달 기지 2단계 확대 - lunar FSP variant 발사 준비 - NASA의 민간 저궤도 서비스 구매자 전환 심화	- Artemis V 이후 상업조달·재사용 하드웨어 비중 확대 - 장기 체류형 달 거점과 화성 준비 인프라 준비
국방부 (우주군)	- Objective Force 2040 기준으로 분산·복원력 구조 전환 착수 - pLEO Mesh 초기 통신망 구축 시작	- pLEO/MEO 기반 차세대 OPIR IOC/PNT 상황인식 체계 운용개념 착수 - 미사일 경보·추적을 legacy OPIR에서 다층 분산형 감시망으로 전환 시작 - SDA 기반 PNT 상황인식 체계 운용개념 착수	- 위성통신 NSO 기반 통합운용 전환 - C2 2→4개, 지상 안테나 11→18개로 확대	- 2033년 OPIR FOC, 2035년 차세대 GPS 6기·보조체계 54개 확대 - 2040년 미사일 경보·추적, 항법전, 위성통신을 분산·복원력 구조로 전환 완료 목표	
상무부 (OSC)	- TraCSS 규칙서 정비위성운영자 대기등록 개시 - STM을 시범사업에서 실제 상업 운영 인프라로 전환	- 미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STM 표준·서비스 체계 확장 - 우주시장 5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를 뒷받침할 상업 우주 인프라·규제·표준 정비 가속	- 발사 cadence와 신규 우주활동 확대를 지원하는 우주교통관리·표준 체계 정착	- 미국이 STM·스펙트럼·상업우주 운영 표준의 국제 기준 선점	
교통부 (FAA/AST)	- 상업우주 규제완화 자문직 신설 - 발사·재진입 면허·환경심사 간소화	- FY2027 AST 예산 5684만달러 요청, 신규 inspector 70명 요청 - licensing backlog 해소와 감독 역량 강화	- 30년까지 상업 발사 빈도와 신규 우주활동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감독 체계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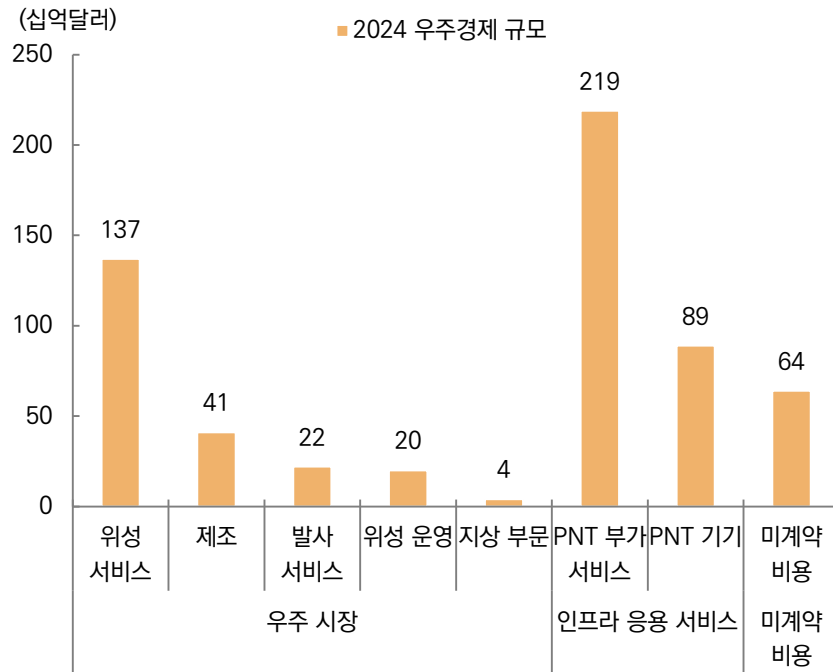
자료: The White House, NAS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우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활성화

민간 자금 투자도 활성화되며 In-Space Economy 중심 기업 수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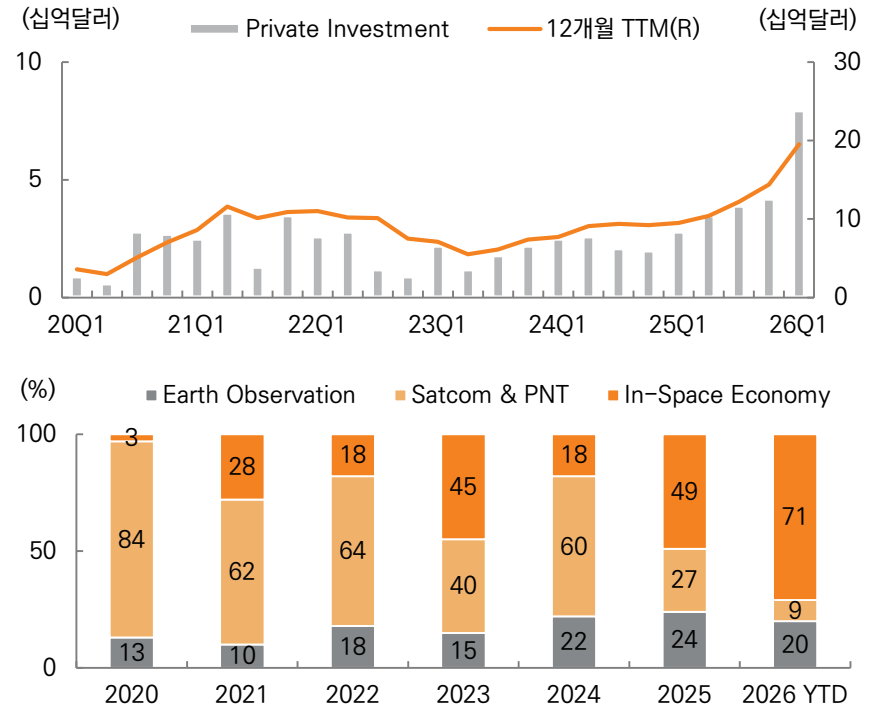
- 우주 산업은 정부 자금 외에도 민간 투자도 성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 25년 하반기 부터 민간 자본 투자 가속화되는 모습
-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위성 기업 Globalstar를 약 116억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4/14). 이번 인수를 Leo 프로젝트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예정. Leo는 2029년말까지 3,000개의 위성을 활용해 AWS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현재 200개 위성을 보유 중
- 또한 지금까지는 위성과 PNT(위치, 항법, 시각) 관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지만 점차 In-Space 경제 관련 분야로 투자가 확산되는 모습
- In-Space 분야는 상업적 우주 센터, 우주내 데이터센터 등 궤도내(orbital)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를 포괄

우주 경제 분야별 규모(2024)



자료: Nova Spac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민간 자본(VC)도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 분야별 자금 유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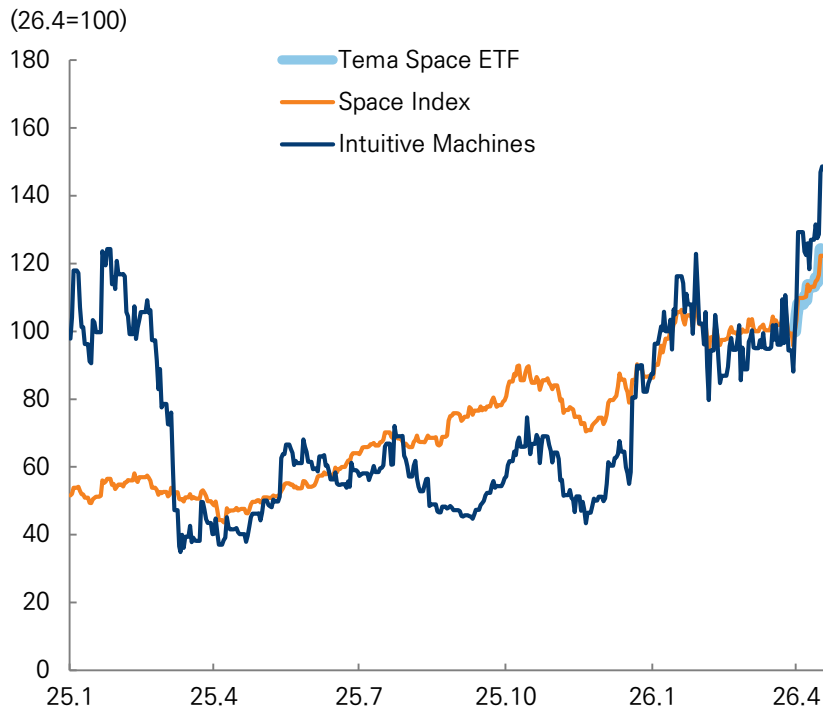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NASA ETF: 우주 테크

Tema Space Innovators ETF

- NASA는 차세대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로켓 발사체·위성통신·지구관측·우주 인프라 관련 기업 중심으로 구성
- 미국의 달 복귀 로드맵 재가동에 따른 상업우주 경제의 성장과 SpaceX IPO 기대가 맞물리며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 필요
- 지역별로는 미국(57.2%), 캐나다(7.3%), 일본(6.6%), 영국(4.2%), 기타(24.9%) 등 순으로 구성
- 상위 보유 종목은 SpaceX SPV Exposure(8.0%), Rocket Lab(7.7%), Planet Labs(6.4%), AST SpaceMobile(5.9%) 순으로 구성

NASA ETF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NASA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SpaceX 비상장 우선주(SPV)	10.6			
Rocket Lab	7.8	30.8	-8.4	14.2
Planet Labs PBC	6.3	14.8	26.3	79.7
AST SpaceMobile	5.9	-2.9	-31.4	5.2
Filtronic PLC	5.4	58.6	54.4	68.5
Intuitive Machines	5.2	45.7	25.8	57.3
Firefly Aerospace	5.1	48.2	19.7	57.0
5N Plus	4.0	0.8	73.4	87.9
BlackSky Technology	3.8	45.3	25.9	80.4
OHB SE	3.7	12.4	-12.2	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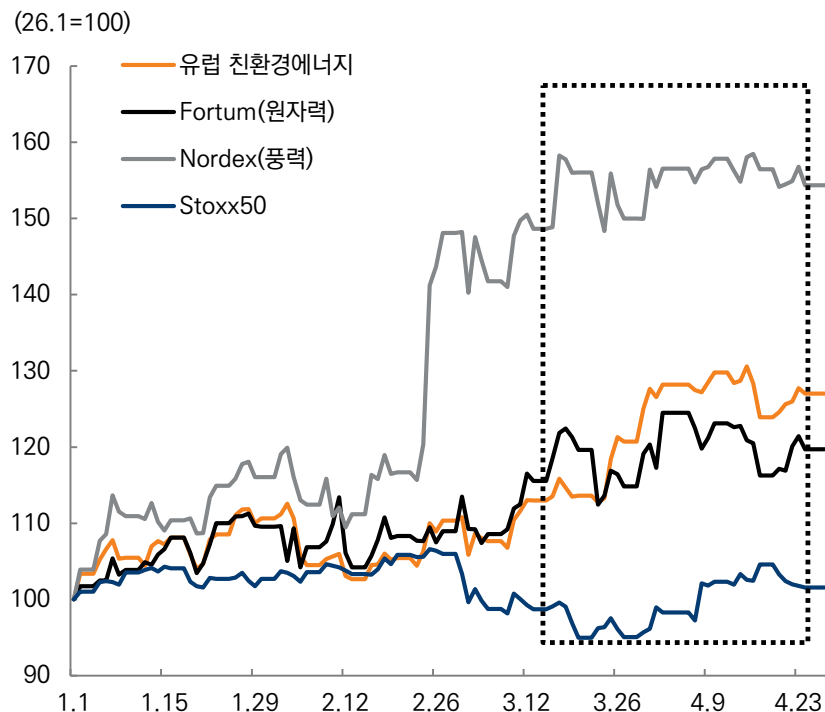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 수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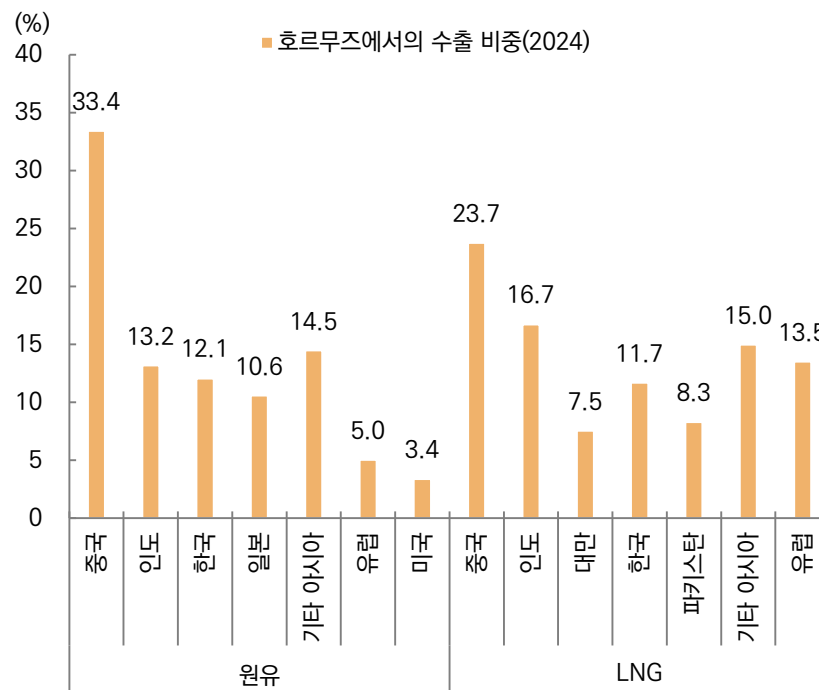
- 이란전의 여파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높아질 전망. 화석 연료의 지정학적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친환경 투자 가속화될 예정
- 특히 유럽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도 겪은 만큼,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모습
- EU 집행위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3/10)에는 에너지 독립 달성을 목표로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 강화책이 포함. SMR를 통해서도 전력 생산과 탄소 감축이 어려운 철강, 화학 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

유럽 신재생 에너지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에너지 수출은 대부분 아시아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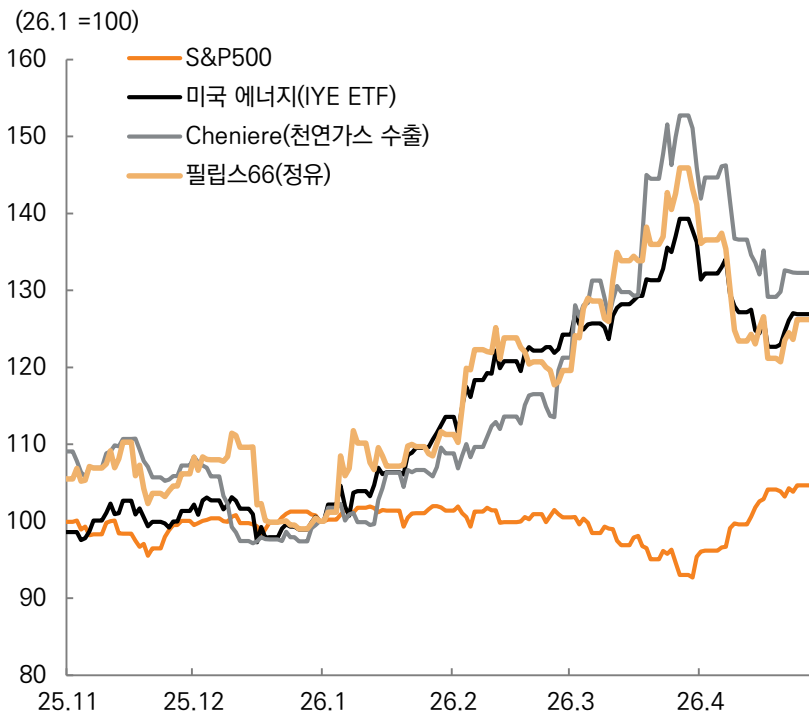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Departmen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은 화석 에너지 생산 증진에 집중

에너지 독립성을 이미 갖춘 미국: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공급 확대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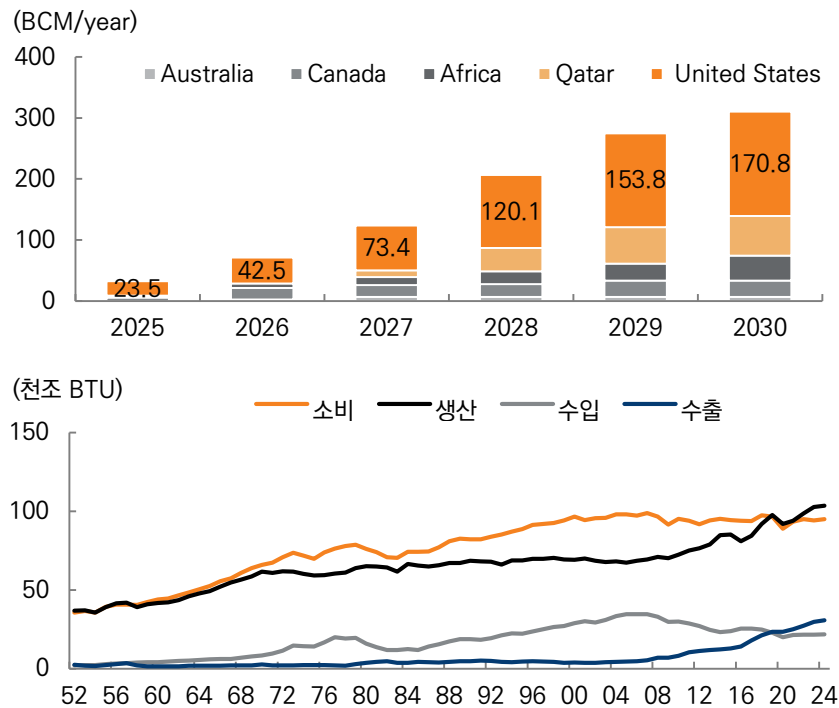
- 유럽, 아시아와는 달리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미 이룬 상태. 2019년부터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 비중이 더 높았음
-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인센티브 적음. 대신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허가 프로세스를 단축 시키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는 중. 중간선거 이전 미국내 에너지 가격 낮추는 과제가 급선무
- 중동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다른 국가들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도 늘어날 전망.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반사 수혜 기대

미국 에너지 기업별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가별 예상되는 천연가스 수출 캐파 증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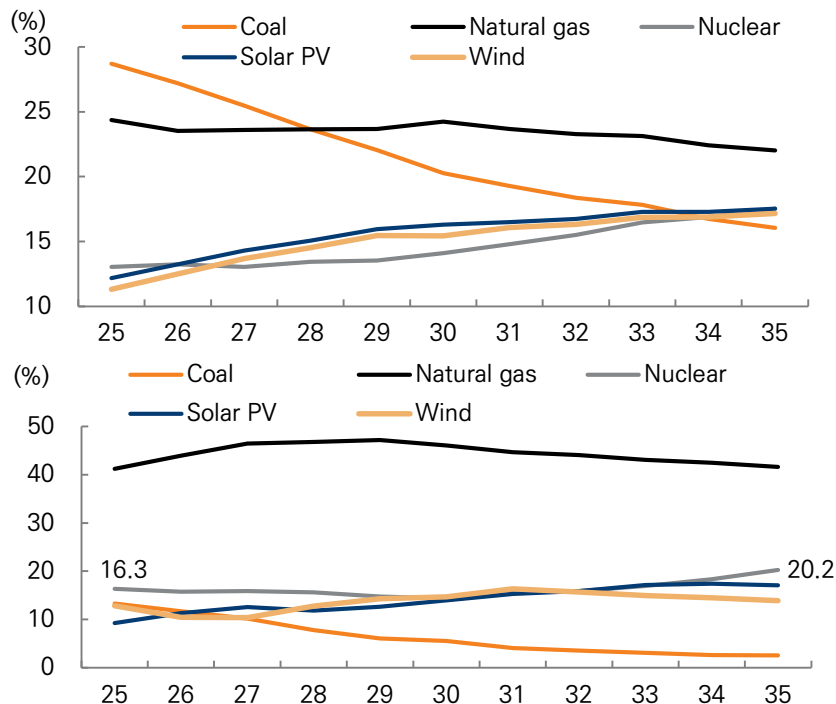
자료: IEA(2025),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공통적으로 육성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도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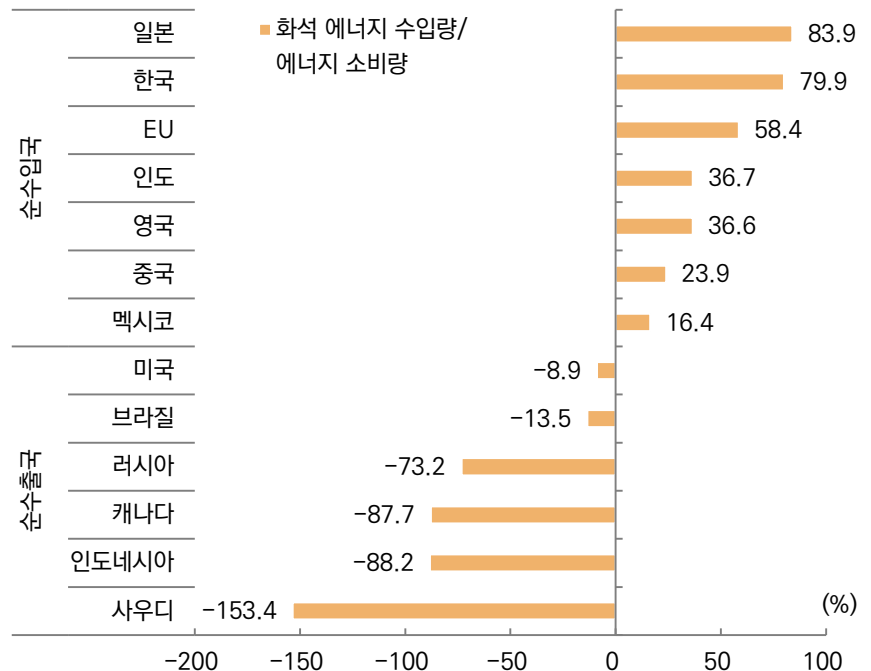
- 유럽, 아시아와는 달리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미 이룬 상태. 2019년부터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 비중이 더 높았음
-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인센티브 적음. 대신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허가 프로세스를 단축 시키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는 중. 중간선거 이전 미국내 에너지 가격 낮추는 과제가 급선무
-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효과도 기대. 미국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충당. 글로벌 기준에서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전망

에너지원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비중(글로벌, 미국)



자료: I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가별 에너지 수입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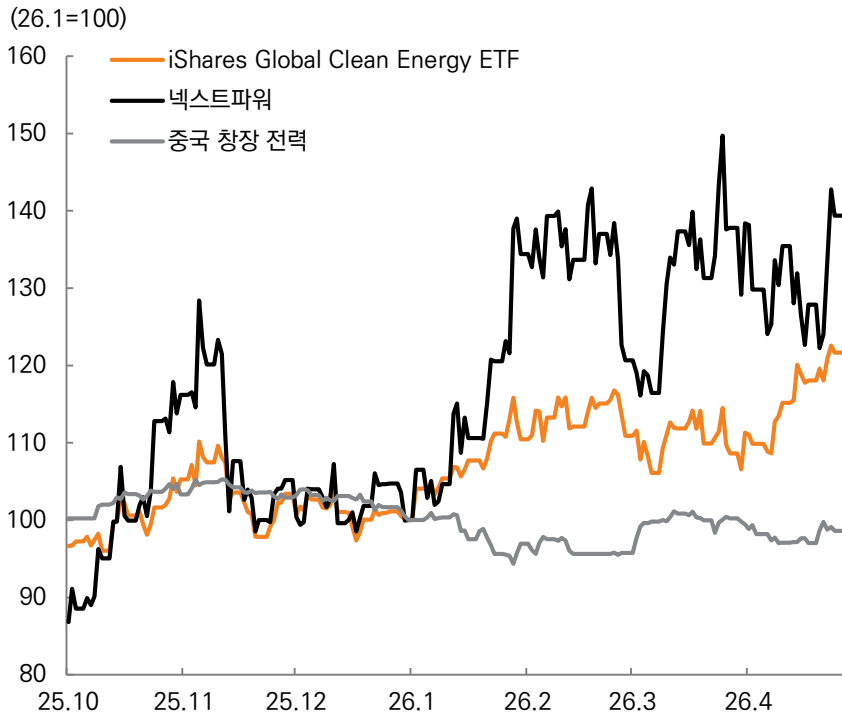
자료: Ember, I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CLN ETF: 신재생 에너지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 ICLN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로, 재생전력·전력유틸리티·전력장비 중심으로 구성
- 이란-미국 전쟁 이후 화석연료 공급망 리스크 부각 속, 에너지 안보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관심 재확대
- 지역별로는 미국(39.86%), 중국(22.44%), 브라질(7.02%), 인도(5.9%), 덴마크(5.3%) 등 순으로 구성
- 상위 보유 종목은 블룸에너지(11.6%), NextPower(7.7%), 퍼스트솔라(7.1%), China Yangtze Power(6.0%) 순으로 구성

ICLN ETF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CLN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Bloom Energy	11.6	73.5	51.8	166.0
Nextpower	7.7	1.1	14.6	39.4
First Solar	7.1	1.8	-17.6	-25.8
China Yangtze Power	6.0	-1.6	3.4	-1.4
Enphase Energy	3.7	-5.5	-10.4	11.6
Plug Power	3.4	44.0	30.3	59.4
Vestas Wind Systems	3.4	8.5	0.4	10.0
Equatorial SA	3.1	12.9	6.3	14.6
Suzlon Energy	2.4	32.1	17.7	2.4
EDP SA	2.4	4.3	4.7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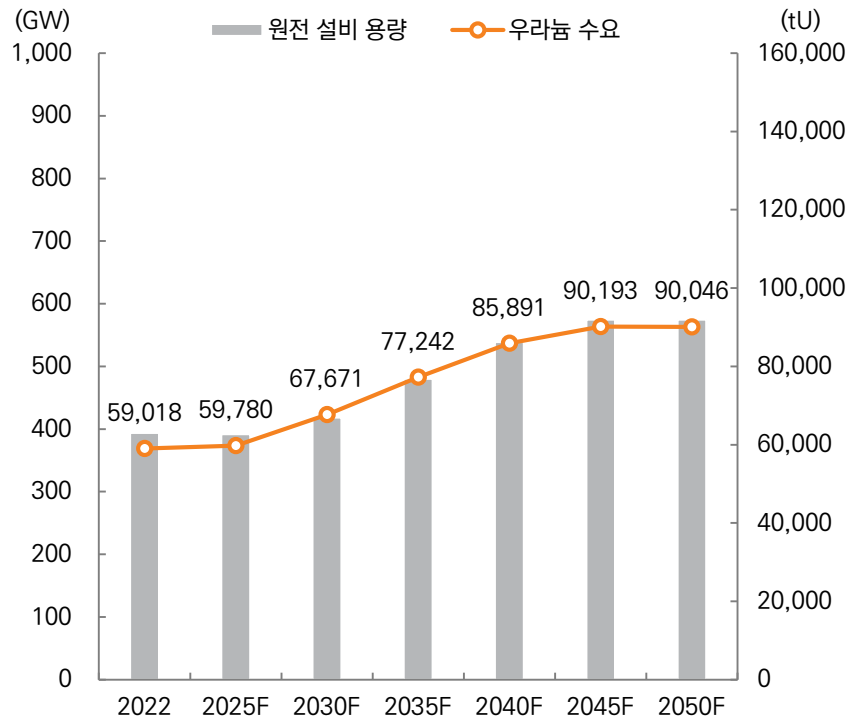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우라늄: 원전 증설 정책으로 수요 ↑

정책적 지원으로 원전 증설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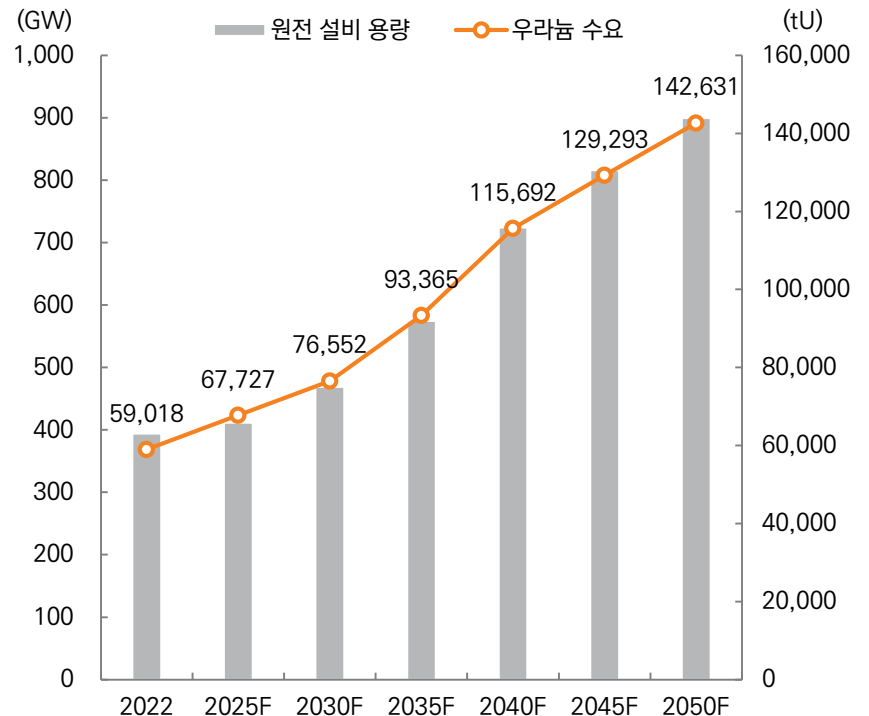
- 2030대부터 본격화될 글로벌 원전 증설은 향후 우라늄 소비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요인으로 작용
-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574~900GW로 확대될 전망. 글로벌 우라늄 수요는 최소 9만tU에서 최대 14.2만tU로 증가 예상
- 미국은 원자력 산업 재건을 목표로 4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발전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고 신규 원전 10기 건설을 추진
- 또한 인허가 절차 단축 및 11.1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확대를 통해 SMR·차세대 원자로 중심의 원전 산업 부활을 가속화하는 국면

글로벌 원전 설비용량 및 우라늄 수요 전망 (저수요)



자료: IAEA, N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원전 설비용량 및 우라늄 수요 전망 (고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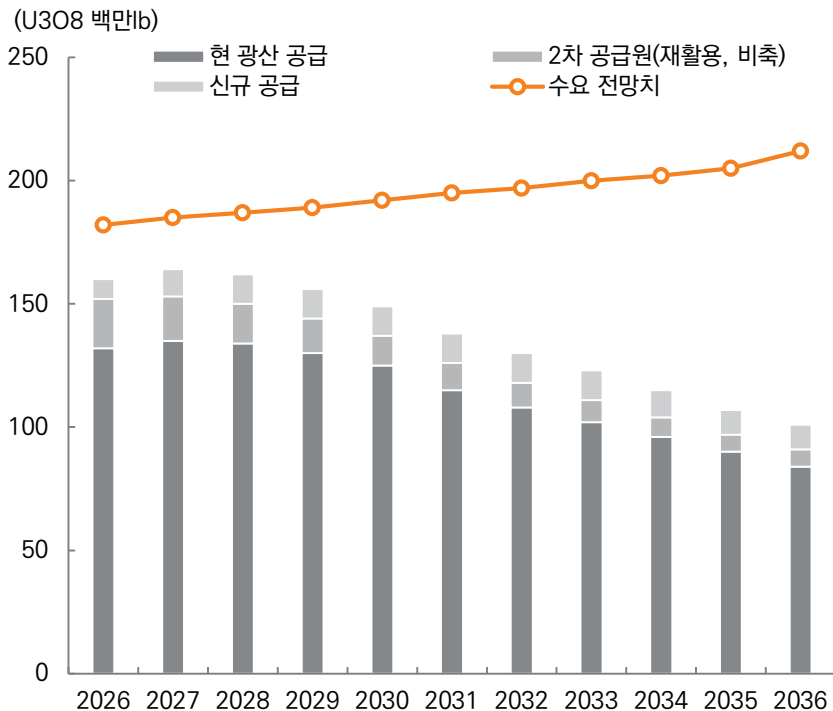
자료: IAEA, N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우라늄: 공급 부족 현상 지속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 점차 심화될 전망: 신규 광산 개발 기업의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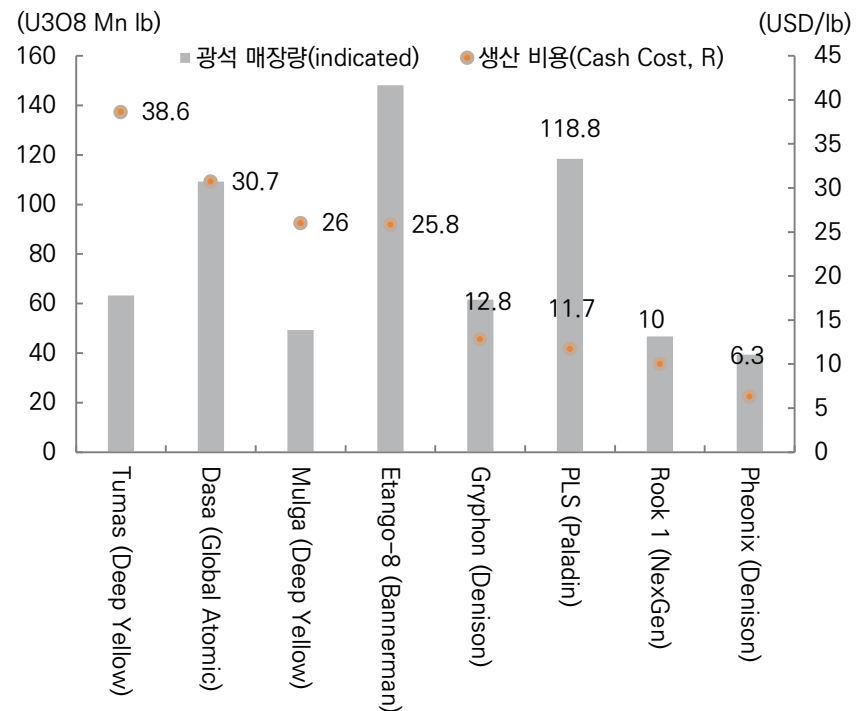
-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매장 지역도 많아졌지만,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격 외에 추가 요건도 충족될 필요
- 기존 우라늄 광산들의 수명이 점차 소멸되면서 향후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음. 신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0년 소요
- 현재 새롭게 광산을 개발 중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할 수 있음. 팔라딘 에너지의 경우 캐나다 PLS를 활용해 major 생산자 중 하나로 도약할 잠재력을 보유

우라늄의 장기 수요, 공급 환경 전망치



자료: Paladin Energ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신규 우라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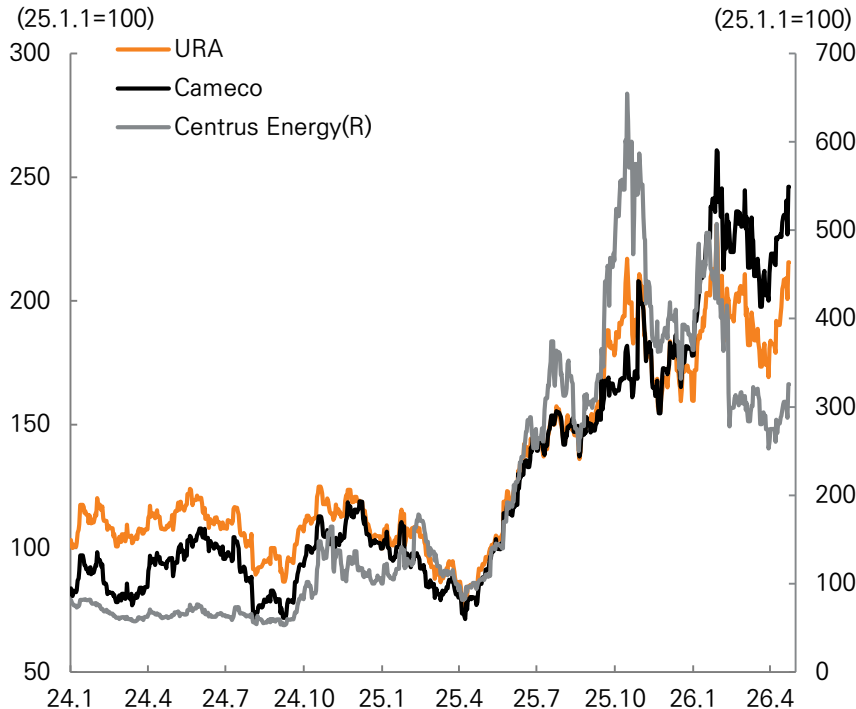
자료: Paladin Energ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URA ETF: 원자력/우라늄

Global X Uranium ETF

- URA는 우라늄 채굴, 탐사, 생산 및 원자력 부속기업 등 우라늄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
- 산업별로는 에너지(65.1%), 산업재(23.2%), 유틸리티(5.9%), 소재(5.0%)로 구성
- 국가별 비중은 캐나다(43.8%), 미국(18.9%), 한국(13.0%), 호주(9.5%), 카자흐스탄(5.3%) 등으로 구성
- Cameco는 인도와의 장기 우라늄 공급 계약 체결과 미-일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수혜 기대가 맞물리며 상대적 강세

URA ETF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URA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Cameco	22.8	15.9	-2.4	32.9
Oklo	7.5	41.3	-16.7	-1.1
NexGen Energy	6.2	10.6	-2.2	34.3
Uranium Energy	5.7	8.7	-26.8	20.3
NAC Kazatomprom	4.9	10.5	7.0	58.4
SPUUF ETF	4.2	4.5	-8.3	3.7
Energy Fuels	4.2	14.0	-15.3	39.7
대우건설	3.8	89.7	577.4	754.0
Paladin Energy	3.4	11.2	-7.6	27.5
현대건설	3.2	16.8	62.0	1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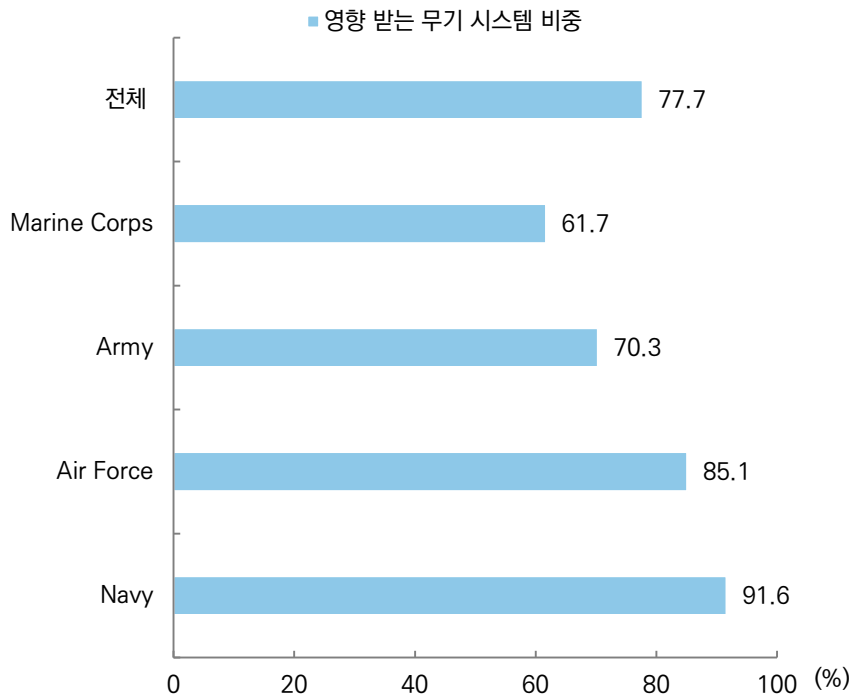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핵심 소재: 전쟁 이후 안보 강화 흐름에 주목

방산품 소재 공급망 안정도 확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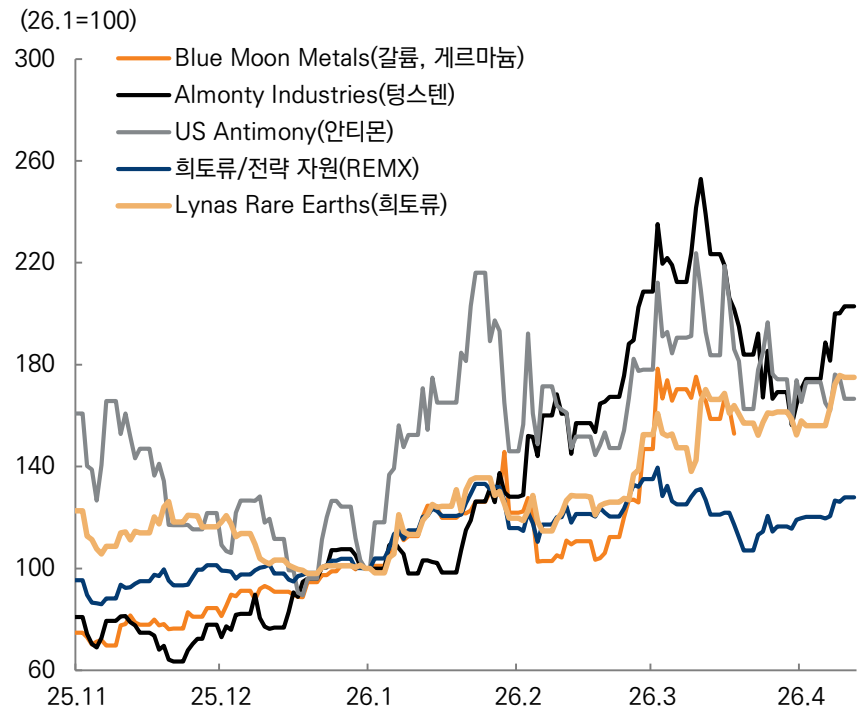
- 미국의 미사일, 탄약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군수 물자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미사일과 탄약 생산에는 특수 광물이 필수적
- 특수 광물들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군에서 활용되는 무기 시스템 중 77% 가량이 부정적 영향에 노출
- 이번 전쟁에서 드론, 요격 미사일, 드론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술에 필요한 소재가 특히 주목받는 모습
- 텅스텐은 장갑 관통 탄약, 갈륨과 게르마늄은 드론과 미사일 조준 시스템에 필요. 희토류는 드론, 미사일에 필요한 영구 자석 생산에 사용

광물 공급 차질 발생시 영향 받는 무기 비중



자료: The Oregon Gro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방산품 소재 생산 기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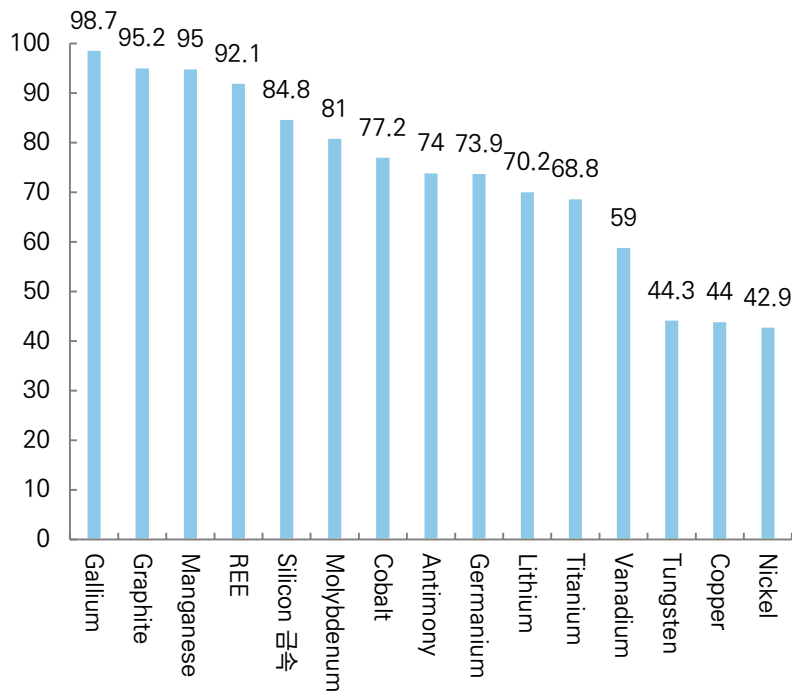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핵심 소재: 전쟁 이후 안보 강화 흐름에 주목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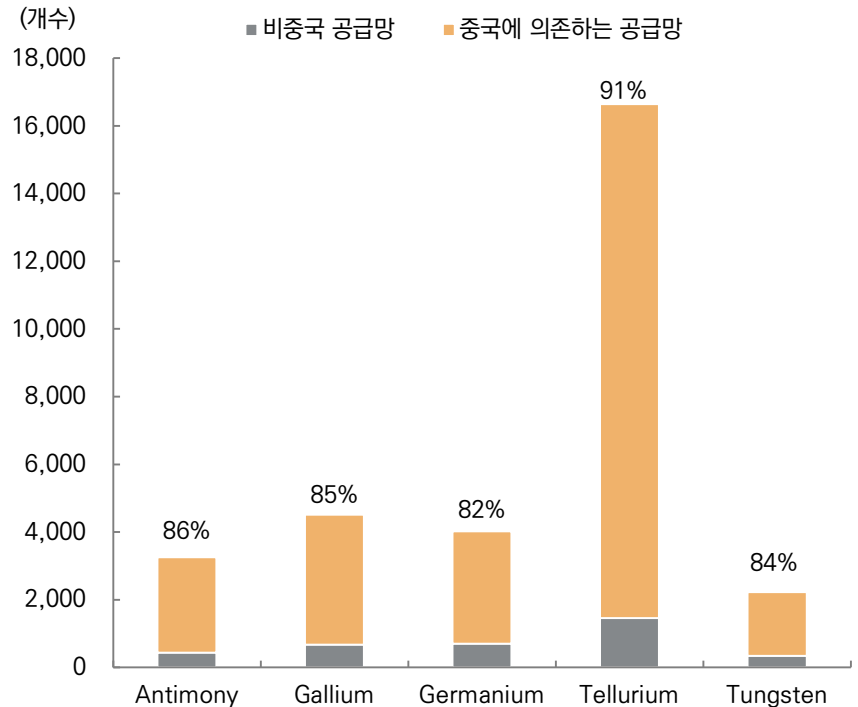
- 문제는 이와 같은 광물들의 공급 중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안티몬이 필요한 미국 방산품 중 86%가 일부 공급을 중국에서 조달. 다른 핵심 광물들의 경우에도 80%는 모두 상회
- 중국이 핵심 광물 제련 과정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IEA가 지정한 20개의 전략 광물 중 19개의 광물에 대해 중국이 가장 높은 정제 비중을 보유
- 미국과 서방권의 방산품 공급망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핵심 광물 소재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핵심 광물들의 중국 정제 비중



자료: The Oregon Gro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방산품 중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 수와 비중(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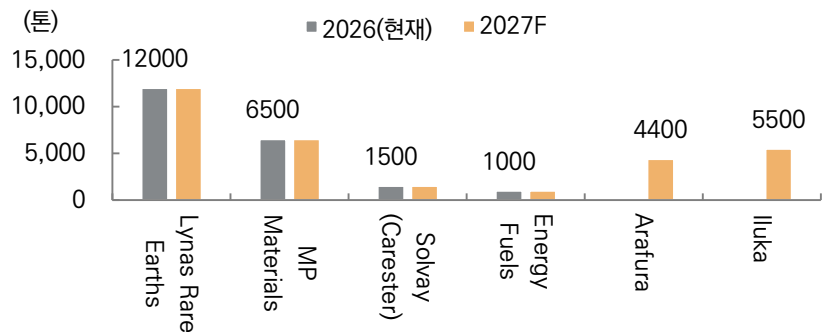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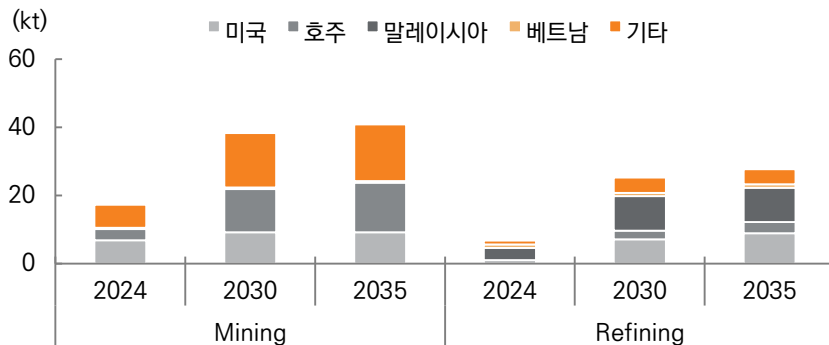
자료: The Oregon Grou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핵심 소재: 독립적 핵심 광물 공급망 형성의 필요성

중국의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

- 원자재 원석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제/처리(processing) 과정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을 낮추는 작업이 시급. 중국은 2020년대 들어 각종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
- 현재로서는 광산 개발을 통해 광물 채굴량을 늘려도 결국 중국에 보내 정제를 맡겨야 하는 상황
-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현재 구축중인 기업들에게 미국, 서방권 수요가 집중될 수 있음. 호주의 Lynas Rare Earth(말레이시아 시설), 미국 MP Materials(정제 시설 건설 중)가 대표적. 2026~27년부터 호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제 시설 개파 증가 예상

새롭게 공급 예정인 비중국 지역 희토류 공급, 기업별 정제 개파



자료: IEA, 각 기업,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주요광물 수출 통제 타임라인

중국의 수출 쿼터제(2010년 ~ 2014년)	
2010.10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 대폭 축소(전년 대비 ~40% 감축)
2012.08	희토류 수출 쿼터 일부 완화
2014.08	WTO 분쟁에서 중국의 수출제한 위법 판정
2015.01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
미-중 갈등(2020년 ~ 2025년)	
2020.12	중국 수출통제법(ECL) 제정
2023.08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 의무 조치 시행
2023.12	흑연(일부 제품) 수출 허가 조치 의무 시행
2024.09	안티몬 수출 허가 조치 의무 시행
2025.04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스칸듐 등) 수출 허가 조치 시행
2025.10	희토류 5종 수출 허가조치 시행
2025.11	미-중 합의로 그전 수출 통제품목들 일부 완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
미-일 갈등(2026년 ~)	
2026.01	일본 대상으로 희토류·희토류 자석 라이선스 제한(dual-use 명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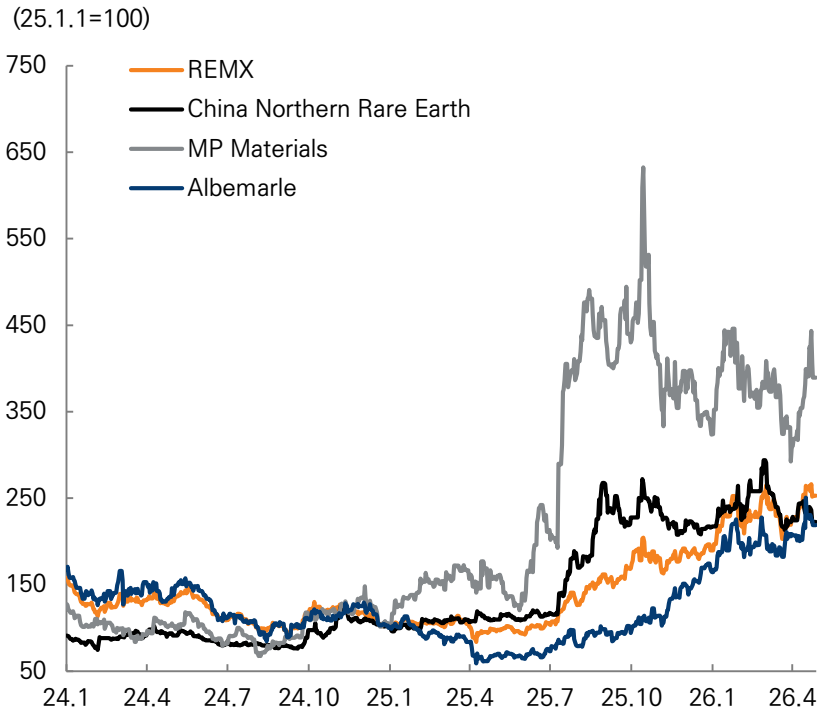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EMX ETF: 희토류/핵심 광물

VanEck Rare Earth and Strategic Metals ETF

- REMX는 희토류 관련 탐사, 정제, 가공, 재활용 등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 구성 종목의 국가 비중은 중국(29.68%), 호주(24.26%), 미국(20.64%), 캐나다(9.47%), 칠레(5.69%) 순
- 최근 희토류를 중심에 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며 관련 기업에 관심 집중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가 가공 핵심광물 수입을 국가 안보 이슈로 규정하고 수입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명령 발표에 희토류 모멘텀 강세

REMX ETF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EMX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Albemarle	8.7	4.9	-3.0	33.2
PLS Group	7.4	14.0	18.3	39.1
Lynas Rare Earths	6.9	-10.6	12.1	44.3
China Northern Rare Earth	6.2	-0.1	-6.9	2.4
MP Materials	6.0	27.8	4.9	43.2
Liontown	5.9	10.4	18.6	57.9
Ganfeng Lithium	5.7	17.2	-9.0	20.2
SQM	5.6	7.4	5.2	29.1
Xiamen Tungsten	4.8	5.2	-3.8	50.5
Shenghe Resources	4.3	45.1	99.3	148.1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 채굴: 미국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이전 NSS에 비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 강조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을 발표. 백악관의 향후 외교,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
- 핵심 변화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정책 방향성이 강화된 부분. 과거 가치 중심의 대결과 국제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하향 조정. 이는 현행 시스템 유지를 의미하는 Global Stewardship의 중요성을 낮추고 이익 중심 전략 중요성이 높아진 데서 확인
- 또한 경제적 안보(Economic Security)를 강조하면서 단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모습.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여기에서 기인

2022년과 2025년 국가안보전략 비교

구분	2022년 NSS	2025년 NSS
Economic Security	전략적 경쟁과 공급망 회복탄력성에 주목	경제 민족주의, 산업 기반 재건, 공급망 안보, 핵심 광물 확보 및 국내 제조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격상
Global Engagement	인도적 문제, 동맹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공약을 강조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강조. 과거 중심적이었던 지역에서의 관여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할 여지
Regional Priorities	유럽, 인도-태평양, 중동 모두 전략적 비중을 유지	서반구(Western Hemisphere)가 다시 중요해지는 반면, 유럽과 중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림.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무역/경제, 기술 경쟁, 공급망 측면에서 접근
Competition with Rivals	장기적 체제 경쟁(민주 vs 권위) 프레임	주로 경제 및 기술 경쟁으로 재정의. 공식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체제/가치의 역할이 축소
Security	동맹, 다국적 대응	조건부 동맹,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보다 거래적이고 이익 중심적
Role of Institutions & Rules	글로벌 규범 강화	국제 기구 및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 역할 축소,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기대
Global Order Implications	미국 중심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유지	블록화, Friend-shoring, 경제적 봉쇄로 이동하며 다국적 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

자료: Western As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역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우선 순위 변화

	KPI	1993	1998	2002	2006	2010	2015	2022	2025
전략 방향	글로벌 규범	5	5	4	4	5	5	5	1
	이익 중심	1	1	3	3	2	2	2	5
	민주주의	4	5	3	3	4	4	5	1
동맹들의 역할	동맹 중심	4	5	4	4	5	5	5	3
	책임 분담	1	1	2	2	2	2	3	5
위협	중국	1	1	2	2	2	3	4	5
	러시아	2	2	2	2	2	3	4	2
경제	경제 안보	1	1	1	1	2	2	3	5
	국경 안보	0	0	1	1	1	1	2	5
지역별 우선 순위	유럽	4	4	3	3	4	4	4	2
	인도 태평양	1	1	2	2	3	4	4	5
	서반구	2	2	2	2	2	2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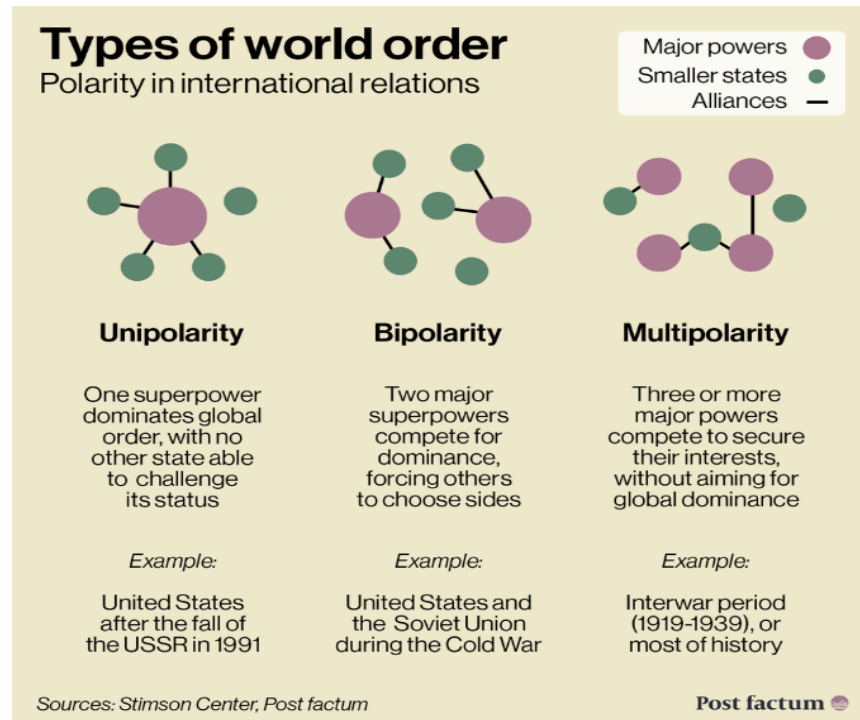
자료: Defense Domain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 채굴: 국제 질서 → 국가 이익 중심 정책

미국의 NSS는 국가 이익이 최우선시되는 질서의 시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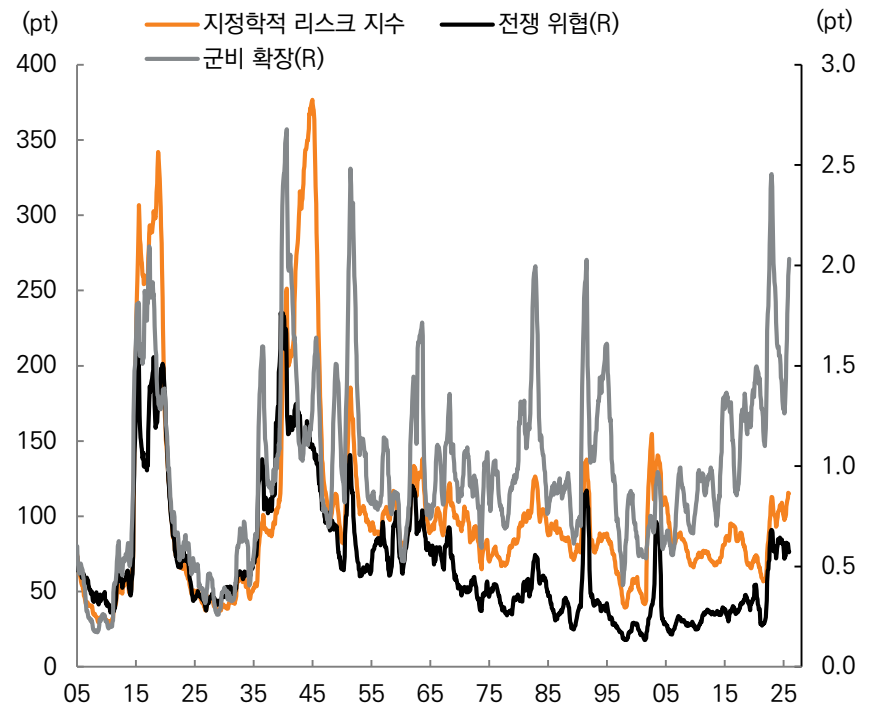
- NSS는 미국이 국제법 수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국가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 이를 본보기로 다른 강대국들도 관심 지역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행동을 할 수 있음. NSS에서는 글로벌 질서를 유지한 시대는 지나갔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
- 이런 흐름은 Unipolar에서 Multipolar로 본격 이동했다는 의미. 각 강대국들의 이익 중심 정책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
- 역사적으로 Multipolar 질서는 1900~14, 1919~39년 구간. 해당 국면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상승

역사적 글로벌 질서 비교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와 세부 항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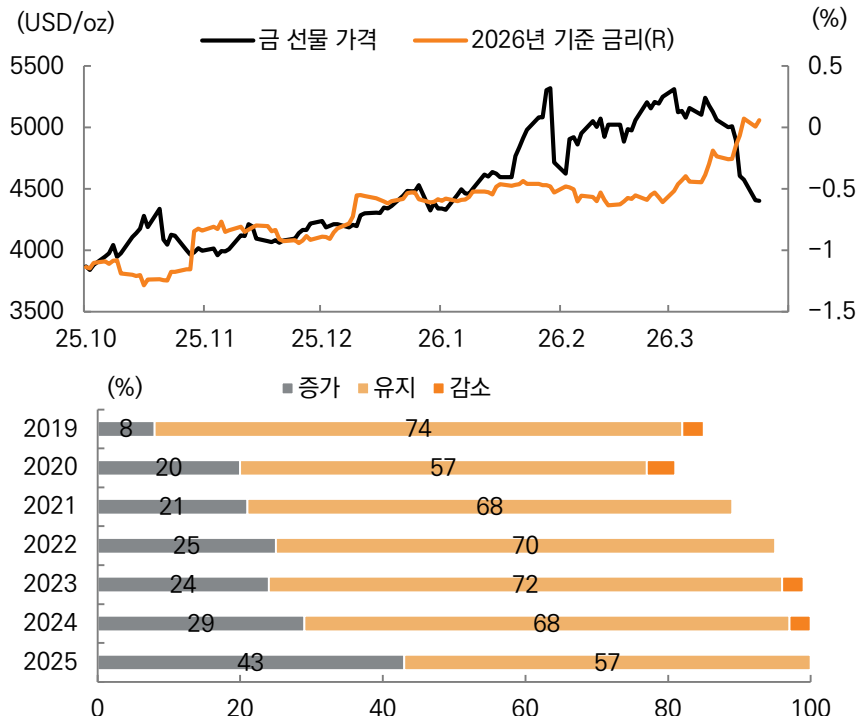
주: 인도의 경우 대외 응답자 중에서는 46%가 강대국으로 인식하지만 자국 응답자 중 70% 이상은 강대국으로 인식
자료: 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5,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 채굴: 금리 인하 기대 위축으로 단기 약세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정책 불확실성 헷지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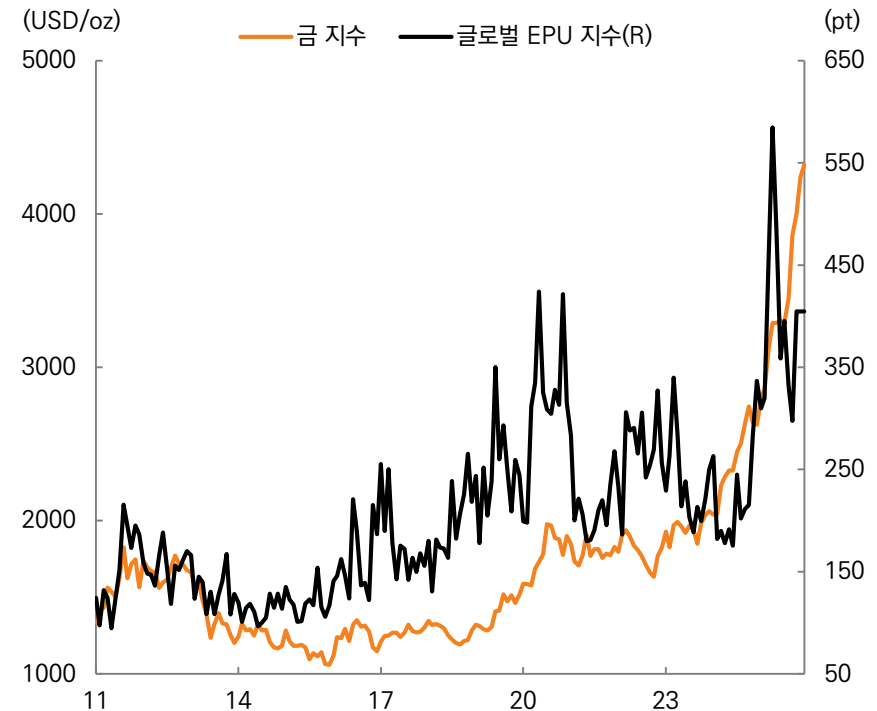
- 이란 전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위축되면서 금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 중동 국가들이 자원 마련 용도로 금을 일부 매도한 점도 부정적
- 그러나 장기적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 오히려 이란 전쟁은 국제 질서가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음
-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높아지면서 최종 안전 자산으로 등극한 금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높아질 전망
-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금융위기 이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 보유량을 늘리겠다는 비율도 상승 중

금 선물 가격과 26년말 예상 기준 금리, 자국 중앙은행 금 보유 설문조사



주: 72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후 12개월 동안의 금 보유량 변화 의사
 자료: Bloomberg, World Gold Counci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금과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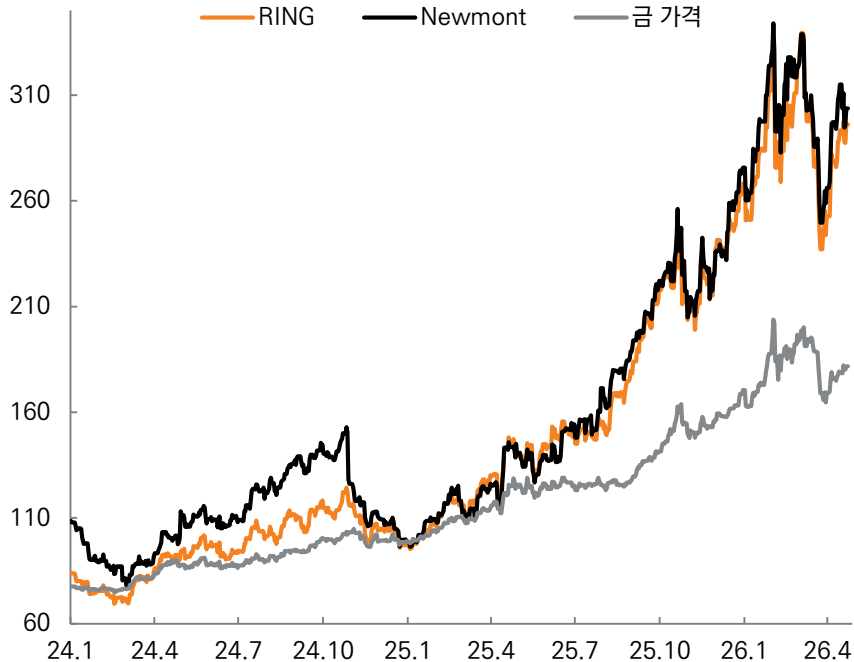
RING ETF: 금 채굴

iShares MSCI Global Gold Miners ETF

- RING은 글로벌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국가별로는 캐나다(55.87%), 미국(19.41%), 남아프리카(11.46%) 등으로 구성
- 올해 금 가격이 급등하며 채굴 기업들 주가도 강세. 금 현물 가격에 비해 채굴 기업들의 상승률이 더 높았음
- 대표적인 금 채굴 ETF인 GDX의 운용 수수료가 0.51%인 데 비해 RING의 운용 수수료는 0.4%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매력적
- 최근 금 가격은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재유입된 데다, 조정 이후 저가매수와 달러 약세가 겹치며 반등

RING 추종 지수와 구성 종목, 금 가격 추이

(25.1.1=100)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ING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Newmont	17.0	18.2	-5.0	20.9
Agnico Eagle Mines	12.7	1.9	-6.8	17.5
Barrick Mining	8.2	5.1	-20.8	-6.1
Wheaton Precious Metals	7.2	9.9	-6.2	18.0
Anglogold Ashanti Plc	4.6	12.5	-12.9	15.9
Kinross Gold	4.6	11.4	-9.3	16.4
Gold Fields	4.3	6.4	-12.2	4.3
Coeur Mining	3.7	12.7	-24.9	8.3
Zijin Mining Group	3.5	8.4	-15.2	3.2
Pan American Silver	3.4	6.6	-12.4	7.5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인프라: 리쇼어링과 전력망 투자

관세와 감세안 인센티브로 활발해지는 리쇼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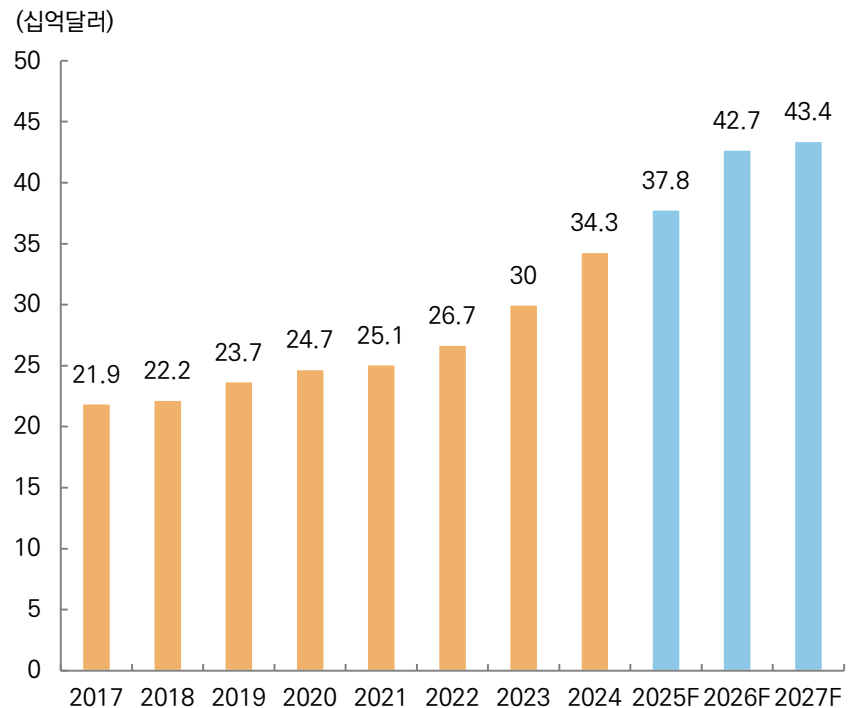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외에도 각종 무역 합의 체결로 미국내 대규모 제조업 시설 투자 발표
-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섹터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미국내 투자를 강조
- 시설 건설에 필요한 각종 산업재,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전력망 확대 필요성 부각. 이미 송전망 노화에 따른 꾸준한 교체 수요는 이어지고 있음. 전체 송전선의 70%의 연식은 25년 이상

트럼프 취임 후 미국 투자를 발표한 제약 기업

기업	산업	발표 날짜	투자 규모(십억 달러)
Apple	IT 하드웨어	2025년 2월, 8월	600
IBM	IT 하드웨어	2025년 4월	120
TSMC	반도체	2025년 3월	100
J&J	제약	2025년 3월	55
Roche	제약	2025년 4월	50
AstraZeneca	제약	2025년 7월	40
Micron	반도체	2025년 6월	30
Eli Lilly	제약	2025년 2월	27
Hyundai Motors	자동차	2025년 4월	26
Novartis	제약	2025년 3월, 8월	26

자료: The White Hou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의 송전망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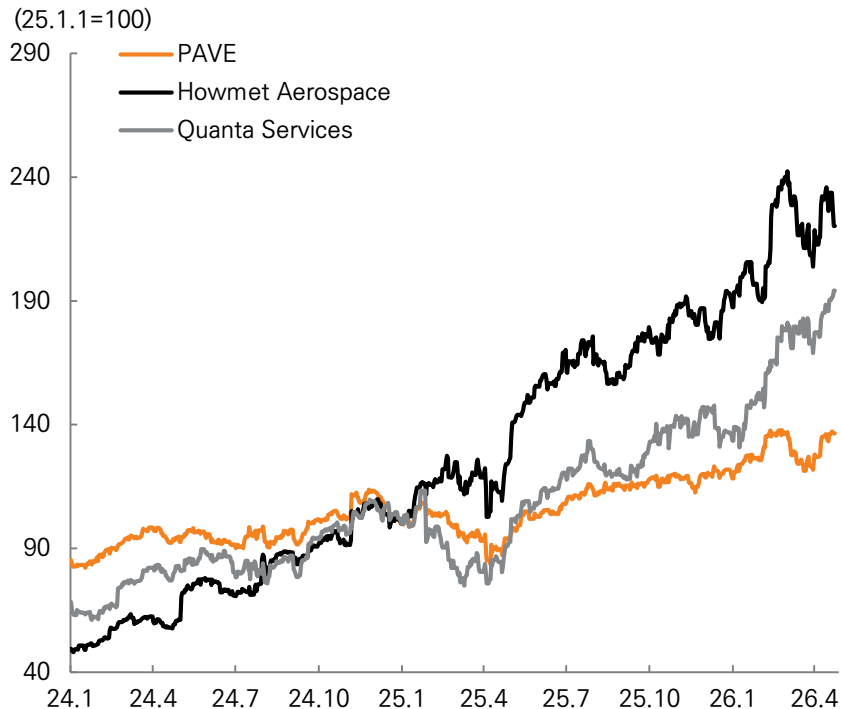
자료: EEC(2025년 1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AVE ETF: 인프라 및 전력기기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 PAVE는 미국 인프라 개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인프라 정책 모멘텀, 구조적인 전력 수요 증가 수혜
- 업종별로는 자본재(61.5%), 소재(22.3%), 운송(9.7%), 유틸리티(3.8%), 하드웨어 및 장비 (1.5%) 등으로 구성
-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 속에 Quanta Service, Sempra 등 유틸리티 관련 기업 강세
- Eaton은 Boyd Thermal 인수에 따른 액체냉각 성장 기대, 엔비디아와의 전력 인프라 협업이 맞물리며 상대적 강세

PAVE ETF와 구성 종목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PAVE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Quanta Services	3.7	13.6	30.4	48.0
Trane Technologies	3.5	14.5	20.5	25.3
Eaton	3.5	18.6	24.2	33.1
CSX	3.4	18.6	24.0	25.0
Howmet Aerospace	3.2	12.5	15.5	16.2
Deere & Co	3.1	-0.7	8.4	20.8
Sempra	3.1	6.4	12.5	18.3
Union Pacific	3.1	12.9	10.6	10.7
Norfolk Southern	3.0	-2.8	7.0	5.6
Parker-Hannifin	2.8	9.7	5.2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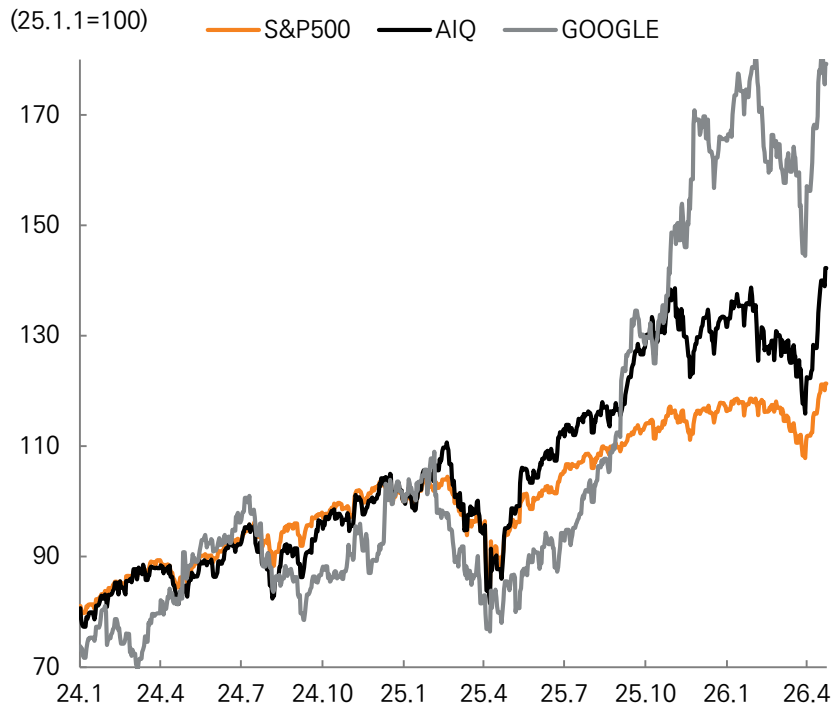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Q ETF: AI 테크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ETF

- AIQ는 미국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 85개의 AI 기업으로 구성.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비중은 35%로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
- 삼성전자, SK Hynix, Netflix, Cisco Systems, TSMC, Apple, Broadcom 등이 비중 상위 종목
-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32.0%), 반도체 및 장비(26.2%), 하드웨어 및 장비(15.8%) 등으로 구성
- AMD는 AI agent 시대 진입에 따른 CPU 수요 재확대와 TSMC·ASML의 AI 투자 지속 확인이 맞물리며 강세

S&P500과 AIQ ETF, 구글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IQ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SK Hynix	4.8	41.7	59.6	97.1
Samsung Electronics	4.3	25.8	39.1	84.8
Broadcom	3.8	40.6	27.0	22.1
Cisco Systems	3.6	39.1	21.1	74.0
Micron Technology	3.6	72.2	38.0	62.4
TSMC	3.5	11.4	13.1	15.6
AMD	3.5	23.2	19.0	32.4
Netflix	3.3	-1.1	8.0	-1.4
NVIDIA	3.3	8.9	5.0	-0.3
Apple	3.2	32.4	7.9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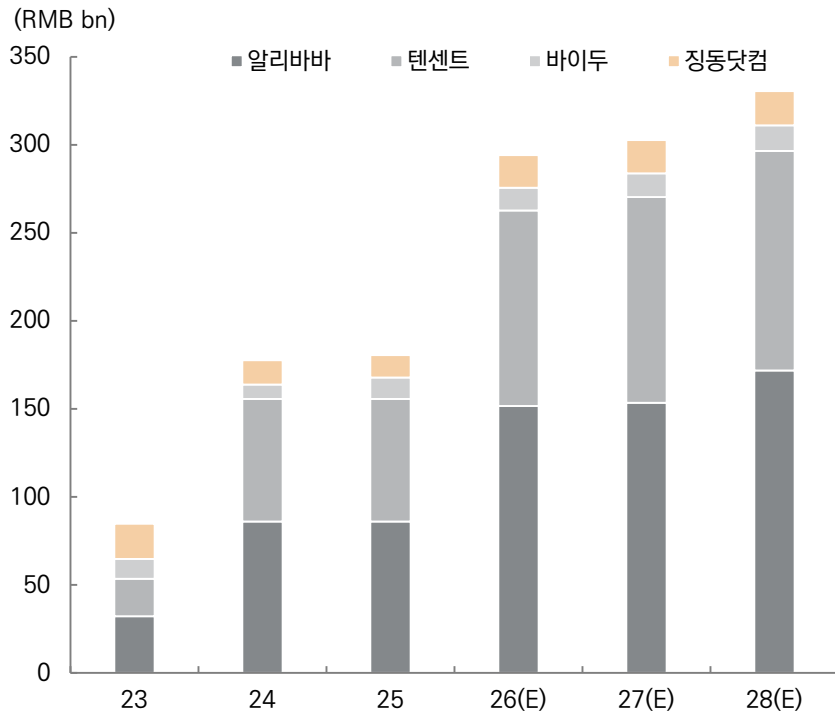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반도체: Capex와 국산화 수혜

중국 빅테크도 공격적인 AI Capex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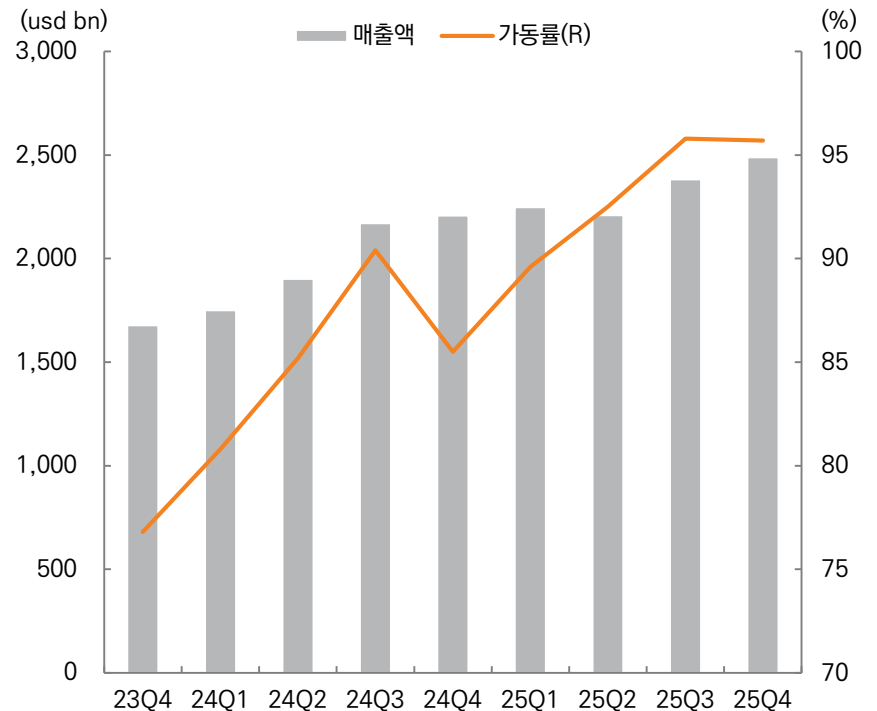
- 중국 빅테크는 AI 모델·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을 묶는 Full-stack 전략의 일환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늘리는 중
- 특히 T-Head, Kunlunxin 등 자체 칩과 외부 GPU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며 중국 내 반도체 내재화 필요성도 강화
-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100에 이어 H200에 대한 수출 규제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체적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내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
- SMIC는 매출 확대, 가동률 상승을 경험하는 중. AI Capex에 힘입은 중국 반도체의 수혜 기대

중국 주요 빅테크 연간 예상 CAPEX 추이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MIC 매출액과 가동률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191 HK: 중국 반도체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3191)은 FactSet China Semiconductor Index를 추종하는 홍콩 상장 ETF
- 상위 보유 종목은 Cambricon(13.1%), 나우라(12.5%), SMIC(11.0%), Montage(6.6%) 순
- 중국이 신규 증설에서 국산 장비 비중 50% 이상을 요구하며 자급화가 가속화되고, AI칩 국산 대체 기대가 겹치며 큰 폭 상승세
- Cambricon은 첫 연간 흑자 전환과 중국의 국산 AI칩 육성 기조, DeepSeek V4의 중국산 칩 최적화 기대가 맞물리며 상대적 강세

3191 ETF와 SMIC 등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3191 ETF 상위 10개 종목

종목 이름	편입비 (%)	수익률 (%)		
		1M	3M	YTD
Cambricon	13.1	4.4	-5.0	3.0
NAURA Technology	12.5	32.1	4.0	-0.2
SMIC	11.0	13.8	-10.6	-9.7
Montage	6.6	21.0	-3.3	38.8
Hygon Information	6.6	29.0	5.3	27.0
Shanghai Biren Tech	5.4	62.0	33.8	136.2
Hua Hong	4.6	30.6	-5.3	45.5
Horizon Robotics	4.6	11.9	-14.0	-11.8
GigaDevice	4.3	15.1	-3.1	38.9
Maxscend	4.3	19.3	27.8	26.0

주: 4월 24일 기준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ETF 관심 리스트

테크 Capex 수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분야에 관심 유지

- AI 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Capex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리. 소프트웨어 이슈에서도 자유로운 편
- 우주 테크: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입량 증가로 관련 기업들에 관심 고조
- 희토류: 서방권내 핵심 광물 공급망 형성 본격화. 이란 전쟁으로 방산 소재 공급 확보의 필요성 부각
- 신재생 에너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할 전망

국내 ETF 관심 리스트

ETF	테마	국내 ETF 티커	대체 ETF명	AUM (십억원)	수수료 (%)	Top 10 비중 (%)	수익률 (%)		
							1M	3M	YTD
AIQ	AI 테크	381170	TIGER 미국 테크TOP10 INDXX	4,166	0.6	100.0	14.7	6.1	5.7
PAVE	인프라/전력	491010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681	0.6	56.9	27.3	43.5	62.0
URA	우라늄	442320	RISE 글로벌원자력	379	0.5	80.0	15.7	17.7	37.1
NASA	우주	0183J0	TIGER 미국우주테크	317	0.5	100.0	-2.0	-2.1	-2.1
3191	중국 반도체	396520	TIGER 차이나반도체 FACTSET	232	0.6	69.5	15.9	0.0	19.3
RING	금 채굴	473640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107	0.9	61.2	6.6	-12.3	9.9
REMX	희토류	415920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58	1.1	66.5	10.4	3.4	35.2
ICLN	친환경	475070	KoAct 글로벌기후테크인프라액티브	52	0.6	54.6	23.4	34.7	55.2

주: 4월 24일 기준, AUM 순으로 정렬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